<세계사 핵심 Key-word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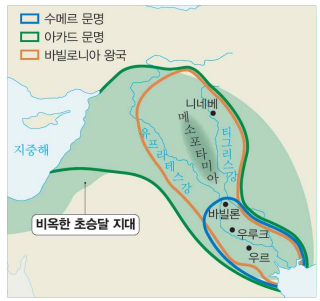
01 인류의 출현과 진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 약 4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 남아프리카 분포(남방의 원숭이)
	• 두 발로 서서 걷고 간단한 도구 사용
호모 에렉투스	• 약 180만 년 전, 인도네시아의 자와 및 중국의 베이징 분포
	• 완전한 직립 보행, 불과 언어 사용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 약 40만 년 전, 유럽과 지중해 일대 분포
	• 시체 매장(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 소유)
호모 사피엔스	• 약 20만 년 전,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 유럽의 크로마뇽인과 중국의 상동인 등
	• 석기 이외에 골각기 등의 도구 사용, 동굴 벽화 제작(사냥의 성공 기원), 여인상 조각(빌렌도르프의 비너스)

02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성립	•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개방적 지형 • 수메르인(우르 · 우르크 · 라가시 등 도시 국가 건설) ⇨ 아카드인 ⇨ 아무르인(바빌로니아 왕국) ⇨ 히타이트인	
특징	정치	• 신권 정치(왕 = 신의 대리자), 함무라비 법전(차별주의 · 보복주의 허용) 나는 신에게 부름을 받은 통치자인 함무라비, …… 제1조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고발인을 사형에 처한다. 제22조 강도질을 한 사람이 붙잡혔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종교	• 현세 중시 세계관(『길가메시 서사시』), 지구라트 건설
	문화	• 쐐기 문자(설형 문자) 사용, 태음력과 60진법 사용, 점성술 발달



02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성립		•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정기적인 범람), 도시 국가들을 통합한 통일 왕국 등장
특징	발전	• 왕조 지속[고왕국(멤피스) ⇨ 중왕국(테베) ⇨ 신왕국(테베 → 아마르나)]
	정치	•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신으로 군림하는 신권 정치 실시
	종교	• 내세적 세계관(영혼불멸 사상, 미라, 피라미드, 『사자의 서』)
	문화	• 상형 문자(파피루스에 기록), 태양력과 10진법 사용, 측량술과 기하학 발달

지중해 연안 문명

히타이트	• 소아시아(아나톨리아) 건국, 철제 무기와 전차, 기병을 이용한 정복 활동, 철기 전파
페니키아	•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 무역 전개,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 건설 • 무역 활동의 편의 등을 위해 표음 문자 제작(→ 알파벳 발전에 기여)
헤브라이	• 가나안(현재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왕국 건설, 솔로몬왕 때 번영,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 • 유일신 숭배 사상과 유대교 발전 →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형성에 영향

〈히타이트의 전차〉

(a)Aloph	Aa(a)Alpha
(b)Beth	B (b)Beta
(g)Gimel	C(g)Gamma
(d)Daleth	D(d)Delta
(h)He	E(e)Epsilon

〈표음 문자와 알파벳〉

02 4대 문명

인도 문명

성립		•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 도시 문명 출현,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
특징	유적	•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계획 도시 → 벽돌로 쌓은 성벽, 포장도로, 하수 시설, 공중목욕탕, 곡물 창고 등을 갖춤)
	문화	• 청동기와 상형 문자 사용, 인장(印章) 사용
	대외	•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

아리아인의 이동

이동	•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 ⇨ 기원전 1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의 펀자브 지방 정착 ⇨기원전 1000년경 갠지스강 유역 진출
특징	• 철제 농기구 사용, 카스트 제도 형성
종교	• 브라만교 성립, 자연 현상 등을 찬미하는 『베다』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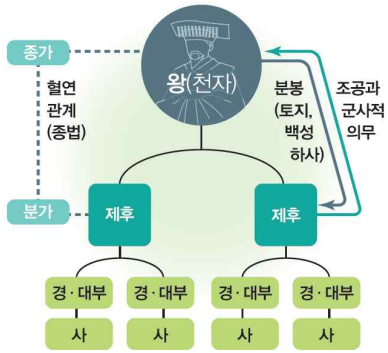
〈모헨조다로의 대목욕장〉

중국 문명

하 왕조		• 기록상의 왕조, 청동기 사용
상 왕조	성립	• 기원전 1600년경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등장
	정치	• 정인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고 국가의 일을 결정(신권 정치), 제정일치
	특징	• 은허 유적(청동 무기 및 청동 제기, 갑골문), 태음력 사용, 순장의 풍습
주 왕조	발전	• 기원전 1046년경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에 도읍, 황허강 유역 지배 → 창장강 일대까지 세력 확대
	정치	• 봉건제(왕은 직할지 통치, 나머지 지역은 왕족과 공신을 제후로 삼아 이들에게 봉토로 분배하여 다스리게 함, 제후는 공납·군사적 의무) • 정전제
	특징	• 종법(직계 적장자 상속, 혈연관계) 중시, 천명사상 강조, 덕치주의

02 4대 문명

중국 문명



03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춘추 전국 시대	• 춘추 시대(기원전 770년 주의 뤄양 천도, 존왕양이·계절존망, 회맹, 5패), 전국 시대(기원전 403, 약육강식·하극상, 합종연횡, 7웅) • 철제 농기구 사용, 우경, 인구 증가와 상업 발달, 도전·포전 유통, 토지 사유화 진전 • 군현제 출현, 유가·법가·도가·묵가 등 제자백가 출현, 개방적 풍조와 능력 중시, 상앙(? ~ 기원전 338)의 변법
진	• 시황제(군현제 실시, 분서갱유, 승상 이사 등용, 몽염의 흉노 정벌, 만리장성 축조, 광둥·북부 베트남 진출, 도량형 통일, 반량전, 소전체) • 아방궁(센양), 병마용갱(兵馬俑坑), 진승·오광의 난(기원전 209, 장초 개창) → 멸망(기원전 206)
한	• 전한(고조·무제) → 신(왕망) → 후한(광무제), 적미의 난(신), 황건적의 난(후한) • 고조(군국제, 한신 참살), 무제(군현제, 장건 월지 파견, 위청·곽거병의 흉노 정벌, 염·철의 전매, 균수법·평준법, 중농억상, 오수전) • 향거리선제(현량방정과) 실시와 호족의 성장, 유교의 국교화(무제, 동중서, 태학, 훈고학), 『사기』(사마천, 기전체), 제지술(채윤), 불교 전래
위·진·남북조	• 위·촉·오, 진(사마염, 265 ~ 316) → 동진(사마예, 317 ~ 420), 북위 효문제(한화정책, 균전제, 삼장제), 9품 중정제 실시와 문벌귀족 성장 • 석굴 사원(북조, 윈강·룽먼) 현학·청담사상(죽림칠현), 도교 발달, 4·6 변려체(도연명, 『귀거래사』), 불도징·구마라습, 『여사잠도』(고개지)
수	• 문제[운하 광통거(584), 과거제(587)], 양제[운하 통제거(605)·영제거(608)·강남하, 대운하 완성(610), 고구려 원정 실패]
당 **(618 ~ 907)**	• 태종(현무문의 변, 재위 626 ~ 649)의 정관의 치(3성 6부, 율령,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동돌궐 정복 → 텡그리 칸 등극) • 현종(재위 712 ~ 756), 개원의 치 → 천보의 쇠(환관 고력사, 양귀비·양국충), 탈라스 전투(751), 안·사의 난(755) → 장원제·양세법·모병제 • 시박사(광저우, 714), 2년 3작(화북 지방 보급), 차(茶) 재배, 행(상업 조합), 비전(약속 어음) • 국제적·귀족적 문화, 장안성(주작대로), 배화교·마니교·경교(네스토리우스교)·이슬람교(청진사) 등 외래종교 수용, 현장(『대당서역기』)·의정, 대안탑, 이백·두보 등 시문학 발달, 『오경정의』(훈고학 집대성, 공영달, 653), 당삼채·마노 잔 • 도호부(630 ~)와 기미 정책, 절도사(710), 황소의 난(875 ~ 884), 절도사 주전충의 난으로 멸망 → 5대 10국 시대(907 ~ 979)

04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송 (960 ~ 1279)	• 조광윤(태조, 카이펑 도읍, 재위 960 ~ 976) → 황제권 강화 정책(문치주의, 재상의 권한 축소, 전시 정례화, 병권 장악과 금군 강화) • 전연의 맹약(진종, 1004), 왕안석의 신법(청묘법·시역법·모역법, 보갑법·보마법, 부국강병 추구, 1069) →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 격화 • 정강의 변(흠종, 북송 멸망, 1126) → 남송 건국(조구, 악비의 도움, 임안, 1127), 금과 화의(군신관계 체결, 1142), 쿠빌라이 칸에 멸망(1279) • 지주전호제 확산, 참파벼 도입(벼의 2기작), 용골차 등 수차 보급, 창장 강 하류(최대 곡창 지대), 교자·회자, 행·작, 석탄 사용 보편화, 제철·도자기 등 수공업 발달, 도시 경제 발달[<청명상하도>(카이펑, 장택단), 『동경몽화록』(맹원로)], 시박사 확대, 일본 등에 동전 수출 • 국수적·서민적 문화, 잡극(인형극), 공연 성행, 통속 문학 유행, 화약·나침반·인쇄술, 성리학(남송, 주희, 『사서집주』), 『자치통감』(사마광)
요, 서하, 금	• 요(916 ~ 1125) : 야율아보기, 남면관·북면관, 연운 16주 지배(936), 전연의 맹(북송과 형제 관계, 세폐), 거란 문자, 북송·금 연합에 멸망 • 서하(1032 ~ 1227) : 탕쿠트 족, 이원호, 칭제건원(1038), 북송과 군신관계 체결(1044), 비단길 장악(동서 무역으로 번성), 서하 문자 • 금(1115 ~ 1234) : 여진, 아구다, 맹안모극제·주현제, 카이펑 함락(1126), 한문 서적을 여진 문자로 번역, 오고타이 칸에 멸망
몽골 ⇨ 원 (1206 ~ 1271 ~ 1368)	• 테무친(쿠릴타이, 칭기즈 칸, 천호제, 호라즘·서하 정복), 오고타이 칸(바투의 원정, 주치 울루스), 몽케 칸(아바스 왕조 정복, 훌라구 울루스) • 쿠빌라이 칸(재위 1260 ~ 1294, 국호 대원, 대도 천도, 남송 정복과 중국 전역 지배, 역참 정비, 몽골인 제일주의, 가마쿠라 막부 원정) • 중국식 통치 제도 채용, 색목인(서역인, 이란·위구르인) 중용, 파스파(몽골) 문자, 백련교도 중심의 홍건적의 난(1251)으로 멸망 • 교초, 목화 재배의 전국 확대(면직업 발달), 시박사(항저우·취안저우), 대운하 정비(항저우 ~ 대도), 강남 지방의 조세 부담 과중 • 카르피니 교황 사절단 입국(1246), 마르코 폴로 체류(1274 ~ 1291), 랍반 사우마의 유럽 순방(1287 ~ 1288), 이븐 바투타 입국(1344) • 국제적·서민적 문화, 티베트 불교(라마교) 국교, 수시력 편찬(곽수경), 원곡(서상기·비파기 등) 성행

05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명 (1368 ~ 1644)	• 홍무제(주원장, 난징 도읍, 재위 1392 ~ 1398, 승상 호유용의 모반과 재상 폐지, 6부의 황제 총괄, 육유 반포, 성리학 관학화, 이갑제, 어린도책·부역황책, 해금 정책), 영락제(주체, 정난의 변, 재위 1402 ~ 1424, 자금성, 베이징 천도, 내각대학사, 정화의 항해, 몽골 원정·베트남 북부 점령, 운하 정비), 만력제(재위 1572 ~ 1582, 북로남왜의 화, 장거정의 개혁 → 일조편법 실시), 이자성 반란군의 베이징 점령(1644) • 감합무역(~ 무로마치 막부), 양명학, 실학(『본초강목』·『천공개물』·『농정전서』 등), 마테오리치(1582년 입국, 『기하원본』, 곤여만국전도)
후금 ⇨ 청 (1616 ~ 1636 ~ 1912)	• 고황제(누르하치, 팔기제, 후금 건국, 1616), 문황제(홍타이지, 국호 '청', 칭제건원, 1636), 순치제(베이징 입성, 1644), 강희제(삼번의 난 진압,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지정은제의 토대 마련), 옹정제(캬흐타 조약, 군기처 설치, 비밀 상주문 제도), 건륭제(몽골·신장·티베트 등 정복 → 최대 영토 확보, 『사고전서』 첫 벌 완성, 영국의 매카트니 사절단 입국), 한족(군현제), 번부(간접 지배) • 한족 강경책(변발령과 호복 강요, 만한통혼 금지, 문자의 옥 등), 한족 회유책(만한병용, 『고금도서 집성』 등 대규모 편찬 사업) • 시헌력(아담 샬, 1645)·카스틸리오네(서양화 기법 전달), 전례 문제(교황 클레멘스 11세의 교령, 1715), 크리스트교 금교령(옹정제, 1723) • 창장강 상류·쓰촨 분지(쌀 생산), 공행 무역(광저우), 지정은제(정세를 지세에 포함하여 은으로 징수, 1712 → 1730) • 고증학, 공양학, 서민 문화 발달(『홍루몽』·『유림외사』, 경극)
명·청	• 신사(지배층, 향촌 사회, 치안유지·조세 징수, 면역·면책 특권), 서민의 지위 향상 → 노변·항조 운동·직용의 변, <성세자생도>(청, 쑤저우) • 매뉴팩처(창장강 하류, 쑤저우·징더전), 옥수수·감자 등 외래 작물 재배, 상품 작물(창장 강 하류), 공소·회관, 산시 상인·휘저우 상인의 활약

06 중국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

개항	• 편무역(17 ~ 18C) ⇨ 삼각무역(19C) ⇨ 제1차 아편 전쟁(1840 ~ 42)과 난징 조약(5개 항구 개방, 홍콩 할양, 공행 폐지, 협정관세 등, 1842) • 선교사 피살(프)과 애로호 사건(영) ⇨ 제2차 아편 전쟁(1856 ~ 60)과 톈진 조약(10개 항구 추가 개방,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 설치,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 1858), 베이징 조약(톈진 조약 비준, 러시아에 연해주 할양, 영국에 주룽 반도 할양, 톈진 개항, 1860)
태평천국 운동 (1851 ~ 1864)	• 홍수전, 상제회(1843 ~), 멸만흥한, 대동사상, 평등사상, 반외세, 태평천국 수립(난징, 1853), 천조전무제도(토지 균분), 아편 엄금, 남녀평등, 전족 금지 등 반봉건 개혁 표방 → 단련, 향용 신사, 상승군의 진압
양무운동 (1861 ~ 1894)	• 이홍장·증국번 등 향용 신사, 중체서용, 동치중흥(1861 ~ 1874), 금릉기기국 설치(1865) • 청프 전쟁(1884 ~ 1885), 청일 전쟁(1894 ~ 1895)의 패배(시모노세키 조약)로 한계 노출
변법자강 운동 (1898)	• 무술변법,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변법통의』), 공양학자, 양무운동 실패와 청일 전쟁 패배에 대한 반성, 제도국 설립 건의, 광서제의 지원 • 메이지 유신 모방, 입헌군주제 표방, 과거제 개혁과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주장 ⇔ 서태후 등 보수파 관료의 반발(무술정변)로 실패
의화단 운동 (1899 ~ 1901)	• 백련교도 계통 비밀결사, 부청멸양, 산둥 봉기 → 톈진 입성 → 베이징 입성 • 선교사 살해, 교회와 철도 파괴, 베이징의 외국 공관 습격, 열강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서태후 등 보수파의 후원 • 8개국 연합(영·독·러·일·미 등)의 베이징 점령(1900), 신축조약 체결(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 인정, 1901)
광서신정	• 광서제(재위 1875 ~ 1908), 서태후 등 보수 세력의 개혁 필요성 절감, 입헌파 주도, 신군 창설, 과거제 폐지(1905), 흠정헌법대강 반포(1908)
신해혁명 (1911)	• 쑨원(1866 ~ 1925), 중국동맹회 결성(도쿄, 1905), 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 주창, 청조 타도 • 민간 철도 국유화 조치 ⇨ 보로 운동 ⇨ 쓰촨 봉기 ⇨ 우창 신군 봉기(11月) • 중화민국 수립(난징, 쑨원 임시대총통 추대, 1912. 1月) ⇨ 청조 멸망(위안스카이, 청 황제 폐위, 1912. 2月) ⇨ 위안스카이의 중화민국 대총통 취임(1912, 3月) ⇨ 위안스카이의 제제 운동(1913 ~ 1915) ⇨ 위안스카이 사후(1916) 군벌 시대 전개

07 중국의 민족 운동

신문화 운동(1915)	• 천두슈·후스·루쉰, 유교 비판, 백화 운동, 『신청년(新青年)』 간행(합리적·민주적·과학적, 1916 ~)
대중국 21개조 요구	• 일본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 산둥 반도 공격 ⇨ 산둥 성에 대한 독일의 이권 요구 ⇨ 위안스카이의 수용(1915)
5·4 운동(1919)	• 파리 강화 회의(1919 ~ 1920)에서 중국 베이징 정부의 외교 실패(열강 → 대중국 21개조 요구와 산둥 반도 이권의 일본 승인) • 베이징 대학생 중심, 반봉건·반제국주의 운동, 베이징 정부의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1919. 6月)
국민혁명	• 중국 국민당 창당(쑨원, 1919) ⇨ 중국 공산당 창당(천두슈·리다자오, 1921) ⇨ 제1차 국공 합작(공산당원의 국민당 입당, 군벌 타도, 1924) ⇨ 쑨원 사망(1925)⇨ 장제스의 북벌 개시(1926) ⇨ 난징·상하이 점령 ⇨ 상하이 반공 쿠데타(4 · 12 사변)와 제1차 국공 합작 결렬(1927) ⇨ 난징 국민정부 수립(1928) ⇨ 베이징 점령 ⇨ 북벌·국민혁명의 완성(1928)
대장정(1934 ~ 1936)	• 소비에트 정부 수립(1931) ⇨ 국민당의 공산당 토벌 작전 재개(1933) ⇨ 중국 공산당 홍군의 대대적인 이동(루이진 → 옌안)

07	중국의 민족 운동
일본의 침략	• 류탸오후 사건(1931) ⇨ 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수상 푸이, 1932) • 중국 공산당의 8·1 항일 구국 선언(내전 중단과 항일 공동 투쟁 표방, 1935) ⇨ 시안 사건(장쉐량, 화청지, 장제스 감금, 1936. 12月) ⇨ 루거우차오 사건 ⇨ 중·일 전쟁 발발(1937. 7. 7.) ⇨ 제2차 국·공 합작(일치항일 전선, 1937 ~ 1944)

08	중국의 공산화와 변화
중국의 공산화	• 충칭 평화 협정(1945) ⇨ 국공 내전[국민당(장제스) ⇔ 공산당(마오쩌둥), 1946 ~ 1949] ⇨ 공산당 승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1949. 10月) •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개인의 이윤 추구 금지, 제1차 5개년 계획(사회주의 경제 개혁, 1953 ~ 1957)
대약진 운동 (1958 ~ 1961)	• 중·소 이념 분쟁 시작(⇔ 흐루쇼프, 1956) ⇨ 소련의 경제 원조 중단 ⇨ 사회주의 경제 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 경제 부흥 모색 • 인민공사 설립(협동 농장 강화, 1958), 재래식 용광로(토법고로) 건설, 마오쩌둥 실각(⇔ 류사오치, 1959)
문화대혁명 (1966 ~ 1976)	•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마오쩌둥 노선 비판 ⇨ 류사오치와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 심화 • 마오쩌둥·장칭, 홍위병, 4대 척결 과제, 중국의 전통 가치와 부르주아 이념 공격 • 국제연합 가입(1971), 미·중 정상 회담(닉슨 ~ 마오쩌둥, 1972)
덩샤오핑의 개혁과 중국의 변화	• 저우언라이 사망(1976. 1月) ⇨ 톈안먼 사건(4月) ⇨ 마오쩌둥 사망(9月) ⇨ 화궈펑의 4인방 숙청 • 덩샤오핑의 권력 장악(1978)과 실용주의 노선[흑묘백묘론, 4대 부문 현대화, 경제 특구 설치(1979)] • 미·중 국교 정상화(덩샤오핑 ~ 카터, 경제 원조 획득, 1979) • 후야오방 사망(1989. 4月) ⇨ 톈안먼 사건(5月) ⇨ 장쩌민 주석 취임(1990) ⇨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1992) • 홍콩 반환(1997), 마카오 반환(1999),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2001),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최(2008)

09	고대 일본의 발전
야요이 시대	•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청동기·철기 전파, 여러 소국의 등장 → 3세기경 30여 소국의 연합체 형성(야마타이국이 가장 강성)
야마토 정권 (592 ~ 710)	• 최초 통일 국가(4세기경), 전방후원분 축조(4 ~ 6세기), 불교 전래(552) • 쇼토쿠 태자[섭정(593 ~ 622), 중앙 집권 체제 강화, 아스카 문화 발달, 호류 지 창건(607)], 견수사(600 ~)·견당사 파견(630 ~)
다이카 개신 (645)	• 쇼토쿠 태자 사후 소가 씨 가문의 권력 독점 → 나카노오에 황자 주도,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소가 씨 세력 제거 시도 • 국호 '일본', 천황의 칭호 사용 시작(7세기 말)
나라 시대 (710 ~ 794)	• 헤이조쿄 건설(장안성 모방), 나라 천도, 도다이사 창건(745), 도다이사 대불전·불상(752) • 『일본서기』·『고사기』 등 역사서 저술, 『만엽집(詩歌集)』 편찬(5 ~ 8세기의 고전 시가 정리), 견당사·견신라사 파견
헤이안 시대 (794 ~ 1185)	• 헤이안쿄(교토) 천도, 군주권 약화, 귀족·호족의 독자 세력 형성, 무사 계층 등장 • 국풍 문화 발달[견당사 폐지(894), 가나 문자, 와카(和歌), 모노가타리(이야기책, 『겐지 이야기』), 침전양식(주택), 소쿠타이(고유 관복)]

10 일본의 막부 정권의 수립

가마쿠라 막부 (1185 ~ 1333)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1147 ~ 1199), 쇼군(정이대장군) 책봉(1192), 덴노는 상징적인 존재로 변모, 쇼군과 무사(고케닌)들이 주종관계 형성 • 여원 연합군의 침입 격퇴(1274·1281) 이후 쇠퇴
무로마치 막부 (1336 ~ 1573)	• 아시카가 다카우지(1305 ~ 1358), 무로마치(교토), 명과 조공·책봉 관계 성립 → 감합 무역 전개(1404 ~ 1547) • 오닌의 난(1467 ~ 1477) ⇨ 전국 시대[다이묘의 경쟁, 왜구 출몰, 조총(1543)·크리스트교(1549) 전래(from 포르투갈), 1467 ~ 1590]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시대 통일(1590) ⇨ 정한론과 조선 침략(1592)
에도 막부 (1603 ~ 1867)	•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 ~ 1616), 에도, 막번(幕藩) 체제, 산킨고타이[무가제법도(武家諸法度, 1615) 기반, 쇼군의 다이묘 통제, 1635 ~] • 나가사키 데지마 건설(포르투갈, 1636) ⇨ 크리스트교 금교령(1612) ⇨ 포르투갈 상인의 입항 금지령(1639) ⇨ 네덜란드 상인의 데지마 상관 이주(1641), 풍설서(네덜란드, 세계정세 보고서) • 주인장 발급(1604 ~ 1635), 조카마치 발달, 조닌의 성장과 가부나카마 조직, 조닌 문화(가부키·우키요에), 국학 운동(→ 존왕양이 운동) • 조선 통신사 입국(1607 ~ 1811), 난학[= 란가쿠, 『해체신서』(스기타 겐파쿠, 1774)]

11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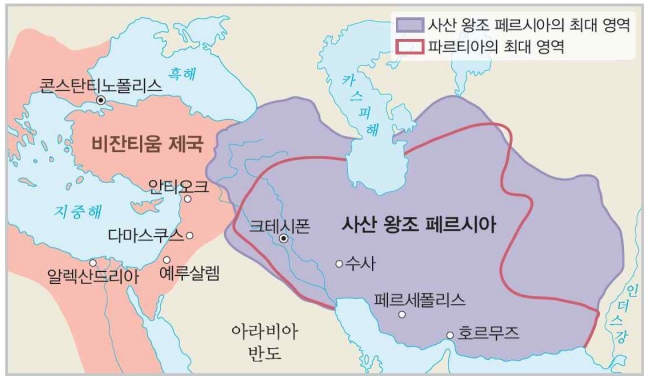
개항	① 페리 제독의 함포 외교(흑선, 1853) ⇨ 미일 화친 조약(시모다·하코다테 등 개방, 최혜국 조항, 영사 주재 허가, 1854) ② 미일 수호통상 조약(가나가와·나가사키·니카타·효고 등 추가 개방, 영사재판권 인정, 협정관세, 1858) ③ 시모노세키 전쟁(1863 ~ 1864) ⇨ 사쓰마번과 조슈번의 비밀 군사 동맹(1866) ⇨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 전개
대정봉환	•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재위 1866 ~ 1867) → 국가 통치권(대정)을 덴노 무쓰히토에 반환(1867. 10月)
왕정복고의 대호령	• 사쓰마번과 조슈번 동맹군이 교토의 궁정 장악 ⇨ 천황 중심의 신정부 수립 선포(1868. 1月)
메이지 유신 (1868 ~ 1912)	• 에도 → 도쿄(1868) → 천도(1869), 폐번치현(1871), 지조(地租) 개정, 정부 주도의 상공업 육성, 징병제 실시(1873) • 신분제 폐지(사민평등), 의무교육 도입(1872), 도쿄 대학 설립(1877),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1871 ~ 1873), 서양 각국에 유학생 파견
자유 민권 운동 (1874 ~)	• 이타가키 다이스케 주도로 『민선의원설립건백서』 제출(1874), 근대적인 의회 설립과 헌법 제정 주장 ⇨ 일본 제국 헌법 공포(1889), 제국 의회 개설(1890), 교육칙어 반포(1890)

12 일본의 대외 팽창

제국주의 팽창	• 홋카이도 개척(1872), 타이완 출병(1874), 운요호 사건(1875)·조선 개항(1876), 류큐 병합(오키나와 현 편입, 1879) • 청·일 전쟁(1894 ~ 1895) ⇨ 시모노세키 조약(최초 식민지로 타이완 획득, 1895) ⇨ 삼국 간섭(러·독·프, 랴오둥 반도 반환, 1895) • 러·일 전쟁(1904 ~ 1905) ⇨ 포츠머스 강화 조약(미국의 중재, 1905. 9月) ⇨ 을사늑약(조선 보호국화, 1905. 11月)
군국주의 팽창	• 만주 사변(1931) ⇨ 만주국 수립(1932) ⇨ 국제연맹 탈퇴(1933) ⇨ 중·일 전쟁(1937) ⇨ 제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1939) ⇨ 베트남 침공(1940) ⇨ 태평양 전쟁 도발(진주만 기습, 1941) ⇨ 패망(1945)

13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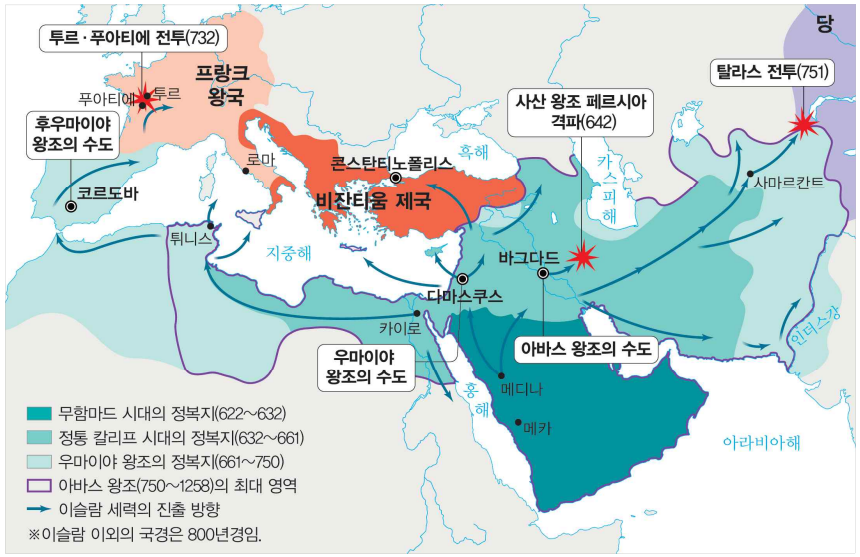
아시리아 (기원전 671 ~ 기원전 609)	• 최초 서아시아 통일, 니네베(수도, 왕립 도서관), 중앙 집권 통치 실시(정복지에 총독 파견, 군용 도로·역전제 정비), 지구라트 건설 • 피지배 민족에 대한 강압적 통치 방식, 신바빌로니아·메디아 연합군의 니네베 점령 → 멸망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기원전 559 ~ 기원전 330)	• 키루스 2세(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 함락, 신바빌로니아 정복,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 존중), 캄비세스 2세(이집트 정복) • 다리우스 1세(재위 기원전 522 ~ 기원전 486) : 페르세폴리스 건설, 총독(사트라프) 파견, 왕의 길(수사 ~ 사르디스), 역참 정비, 감찰관(왕의 눈·왕의 귀) 파견,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발발 • 조로아스터교(조로아스터 창시, 아후라 마즈다 신봉, 성화단을 만들어 예배)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다리우스 3세, 이소스·가우가멜라 전투)
파르티아** (기원전 247 ~ 기원후 226)	• 셀레우코스 왕조의 쇠퇴 →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아르사케스 1세, 크테시폰), 중계 무역으로 번영(로마 ~ 인도의 쿠샨 왕조 ~ 한) • 로마 크라수스의 군대 격퇴(오로데스 2세, 기원전 53), 사산 왕조 페르시아(아르다시르 1세)에 멸망
사산 왕조 페르시아 (224 ~ 651)	• 이란계 민족의 건국(아르다시르 1세), 크테시폰(수도), 쿠샨 왕조 침략, 에데사 전투(⇔ 로마 발레리아누스, 260), 비잔티움 제국과 중계 무역 주도권 경쟁, 메소포타미아 ~ 인더스 강(⇔ 굽타 왕조)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651) • 조로아스터교(국교, 『젠드아베스타』 편찬), 마니교 창시(→ 탄압,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래), 궁정 건축,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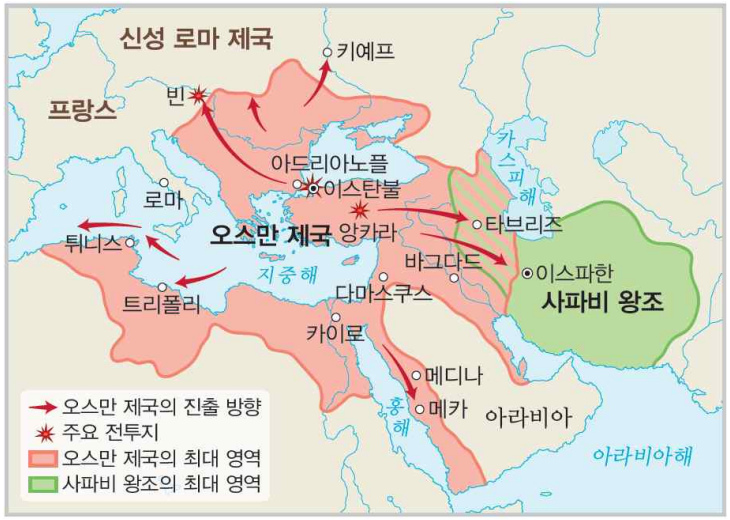
14 이슬람 세계의 형성

이슬람교 성립(610)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대립 ⇨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교역로 발달 ⇨ 메카·메디나 등의 도시 번성 ⇨ 빈부격차 심화 • 무함마드(메카, 알라의 계시, 알라에 대한 절대복종), 『쿠란』(경전, 생활 지침서), 6신 5행(샤하다·살라트·자카트·라마단·하지), 지즈야
이슬람의 문화	• 동서 문화 융합, 이슬람 문화권(아랍어·이슬람교), 『쿠란』의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학 발달, 신학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번역(→ 스콜라 철학 성립에 영향), 자연과학 발달[화학, 수학, 의학(이븐 시나, 『의학정전』), 역법] • 모스크[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곳, 비잔티움 양식 + 사산 왕조 페르시아 건축 양식 + 돔·첨탑(미나렛)], 조형 미술 쇠퇴(아라베스크 문양 발달), 『여행기』(이븐바투타), 『아라비안나이트』

15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무함마드 시대	• 헤지라(메카 → 메디나, 성천, 622), 움마 건설, 메카 탈환과 아라비아 반도 통일(630), 시리아 원정 도중 후계자 지명 없이 사망(632)
	정통 칼리프 시대 (632 ~ 661)	• 메디나, 선출 칼리프 시대(아부 바르크 ⇨ 우마르 ⇨ 오트만 ⇨ 시아 알리) •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정복(651), 시리아 정복, 예루살렘 점령, 이집트 정복, 중앙아시아로 세력 확대, 정복지의 이교도에게 지즈야 징수
	우마이야 왕조 (661 ~ 750)	• 다마스쿠스, 세습 칼리프 시대, 카르발라의 참극(야지드 1세, 시아파·수니파의 분리, 680), 북서부 아프리카 점령, 이베리아 반도 진출(711), 북인도 진출(713), 투르·푸아티에 전투(732) 패배, 자브 전투에서 아부 무슬림에게 패배 • 아랍인 우월주의[비(非)아랍인 이슬람교도 차별, 아랍어(공용어)], 바위의 돔 건립(예루살렘, 691)
	아바스 왕조 (750 ~ 1258)	• 아부 알 아바스의 수립, 바그다드[알 만수르, 메디나트 알 살람, 세계의 시장], 관료제·상비군·군인 노예, 탈라스 전투 승리(비단길 경영권 확보, 751), 몽골 훌라구의 원정으로 멸망(→ 훌라구 울루스 성립) • 아랍인 우월주의 폐지, 이슬람교도의 평등 강조, 범(凡)이슬람 제국, 지혜의 집(바그다드, 832)
	후우마이야 왕조 (756 ~ 1031)	• 코르도바(이베리아 반도), 서(西)칼리프(10세기 전반 칼리프 선언) • 이슬람·비잔티움·그리스 문화 융합, 코르도바 메스키타
	파티마 왕조	• 시아파, 북아프리카 건국(909), 카이로 천도(969), 10세기 초 칼리프 선언, 알 아즈하르 대학 설립, 멸망(by 아이유브 왕조)
	그라나다 왕국	• 무함마드 1세의 창립(1231), 알함브라 궁전(1323),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으로 멸망(1492)
	셀주크 튀르크 (1037 ~ 1242)	• 코니아(수도), 초대 술탄 투그릴 베그[단다나칸 전투(⇔ 가즈니 왕조, 1040), 이스파한 점령(1049), 바그다드 입성(1055), 아바스 왕조의 알 카임 1세로부터 술탄 칭호 획득, 재위 1037 ~ 1063], 예루살렘 점령(1071), 아나톨리아 진출, 십자군 전쟁 유발, 이크타 제도, 멸망(by 몽골)



16	이슬람 세계의 팽창		
	오스만 제국 (1299 ~ 1922)	성립 · 발전	• 오스만 족이 아나톨리아에서 건국(1299), 비잔티움의 크리스트교 연합군 격파 → 발칸 반도 장악, 술탄 칭호 사용
			• 메흐메트 2세[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비잔티움 정복, 이스탄불 개칭, 1453),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진출] • 셀림 1세[맘루크 왕조 정복(메카·메디나 보호권 장악, 1517), 술탄·칼리프 제도(정교일치) 확립] • 술레이만 1세(재위 1520 ~ 1566) : 헝가리 정복, 빈 포위 공격과 실패(1526 ~ 1529), 바그다드 점령(1533), 프레베자 전투(동지중해의 제해권 장악, 1538), : 바부르 지원(1526), 루터파 제후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제안(1552), 법령 정비와 법전 편찬(입법자), 예술 분야 후원 • 셀림 2세[레판토 해전 패배(⇔ 펠리페 2세, 1571) → 지중해 제해권 상실]
		통치	• 티마르 제도[군정관·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티마르) 부여], 데브시르메 제도(크리스트교도 소년 징집), 예니체리(술탄 친위 부대) 육성, 시파히(기갑 군단), 밀레트 제도(인두세 납부 조건으로 이교도의 종교 공동체 인정)
		문화	• 톱카프 궁전, 술레이마니예 사원(1557), 술레이만 사원, 술탄 아흐메드 사원(블루 모스크), 튀르크 궁정 문학 발달, 세밀화 유행
	맘루크 왕조		• 맘루크(용병)가 성립(1250), 아이유브 왕조에 이어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 통치, 몽골군 격퇴(메카·메디나 보호), 오스만 튀르크에 멸망(1517)
	티무르 왕조 (1370 ~ 1507)		• 티무르[재위 1370 ~ 1405, 몽골 부활 표방, 델리 술탄 왕조 침공, 앙카라 전투 승리(⇔ 오스만, 1402), 명 원정], 우즈베크인에게 멸망 •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수도 사마르칸트), 튀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융합, 세밀화, 천문학 발달
	사파비 왕조 (1501 ~ 1736)		• 이스마일 1세[타브리즈(이란 지역)를 중심으로 건국,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 표방, 시아파 이슬람교(국교), 군주 칭호 '샤' 사용] • 아바스 1세[이스파한 천도(1597), 군사력 강화, 비단 산업의 국유화, 크리스트교 포교 허용, 이맘 모스크 건설] • 수니파 국가인 오스만 제국과 대립,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멸망



17 서아시아·이집트의 민족 운동

오스만 제국	• 그리스의 독립과 이집트의 자치 허용(1829), 강대국(영·러)의 압박 ⇨ 탄지마트(술탄 압둘 메지트 1세, 장미의 방 칙령, 1839 ~ 1876) ⇨ 미드하트 헌법 공포(미드하트 파샤 주도, 입헌군주제, 종교의 자유, = 오스만 제국 헌법, 1876) ⇨ 러시아·튀르크 전쟁(1877 ~ 1878)으로 개혁 중단 ⇨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의 헌법 정지 • 청년 튀르크 당(1889 ~ 1922)의 입헌 혁명 : 무장봉기와 권력 장악(1908), 1876년 헌법 부활, 입헌 정치 주장, 근대화 정책 추진,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제국 내 다른 민족의 반발)
아라비아 세계의 각성	• 와하브 운동(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 주도, 18세기) : 이슬람 순화 운동(『쿠란』으로 돌아가라), 아랍 민족의식 강화, 제1차 사우디 왕국(1774 ~ 1818) 건설
이란(카자르 왕조)	• 러시아와 영국의 경쟁에 휩쓸려 많은 영토와 이권 상실 → 나세르 알 딘 샤(영국에 담배 전매 독점권 부여, 1890) • 아프가니의 담배 이권 수호 운동 → 영국 담배 불매 운동(1891), 담배 독점권 회수 • 입헌 혁명[국민 의회 수립,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1906), 1905 ~ 1908] ⇨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협정(1912), 반(半)식민지 상태로 전락
이집트	• 맘루크들의 권력 투쟁, 종교 지도자들의 봉기로 총독 쿠르시드 파샤 무력화 • 무함마드 알리[태수 임명(오스만 제국 술탄의 승인, 1805), 와하브 왕국 정복(1818), 자치 획득(1829)] • 프랑스 레셉스의 수에즈 운하 개설 특허 획득 ⇨ 수에즈 운하 개통(1869) ⇨ 영국의 운하 경영권 차지(1875) ⇨ 내정 간섭 강화 • 아라비 파샤[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 주장, 혁명 운동(1881 ~ 1882), 헌법 제정과 의회 선거 요구, 영국의 진압으로 실패] •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1882) ⇨ 영국으로부터 독립(1922) ⇨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선언(나세르, 1956)

18 고대 인도 세계의 발전

불교·자이나교의 출현	• 기원전 7세기경 브라만교의 형식화된 제사 의식과 브라만 사제의 횡포와 타락, 카스트제의 계급 차별을 비판하는 여러 움직임 등장 • 기원전 6세기경 불교(고타마 싯다르타, 욕심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 강조)와 자이나교(바르다마나, 금욕과 해탈 강조) 창시
마우리아 왕조 (기원전 317 ~ 기원전 180)	• 알렉산드로스 원정군의 인더스 유역 침공 → 통일 자극 •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북인도 통일, 왕조 개창, 수도 파탈리푸트라, 셀레우코스 1세와 평화 협정 체결) • 아소카 왕(재위 기원전 270 ~ 기원전 230) : 칼링가 정복,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석주 건립, 불교 장려(상좌부 불교, 불경 결집, 스투파 제작, 시암·실론 등에 포교단 파견)
쿠샨 왕조 (30 ~ 375)	• 이란계 쿠샨 족의 건국, 서북부 지역 푸르샤푸라 중심, 후한 ~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교역로 장악 • 카니슈카 왕(재위 128 ~ 151) : 북인도 ~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영토 확보, 대승 불교, 산스크리트어 경전 완성 • 간다라 양식(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 불상 제작)

19	인도 고전 문화의 발달
굽타 왕조 (320 ~ 550)	• 찬드라굽타 1세(북인도 재통일, 갠지스 강 유역의 파탈리푸트라) • 찬드라굽타 2세(전성기, 북인도 전역 통일, 학문과 예술 적극 장려 → 독자적인 인도 문화 발전)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접경, 에프탈의 침입으로 멸망(550) •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 : 힌두교 성립(브라만교 + 불교 + 고유 신앙, 브라흐마·비슈누·시바·라마, 『마누 법전』) → 왕들이 자신을 비슈누에 비유하며 후원 : 산스크리트 문학(『사쿤탈라』·『메가두타』, 『마하바라타』·『라마야나』) : 굽타 양식[인도 고유의 특색, 아잔타 석굴 사원(굽타 양식의 불상과 벽화), 엘로라 석굴(불교·힌두교·자이나교 사원)] • 오리엔트 천문학 수용, 월식·지구 구형·자전 인식, 숫자 0의 개념과 10진법, 아라비아 숫자에 영향

20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가즈니 왕조(962 ~ 1186)	• 수도 가즈니(아프가니스탄 중동부), 북인도의 펀자브 지역 차지, 힌두교 사원 공격(마흐무드), 페르시아·튀르크·이슬람 문화의 융합
구르 왕조(1187 ~ 1215)	• 구르(아프가니스탄 동부 지방) 중심, 인도 내륙으로 세력 확장(1190년 경), 델리 장악(1192), 불교·힌두교 사원 파괴
델리 술탄 왕조 시대 (1205 ~ 1526)	• 수도 델리, 벵골·카슈미르 지방이 인도 영토로 편입, 아이바크 왕조 ⇨ 할지 왕조 ⇨ 투글루크 왕조 ⇨ 사이이드 왕조 ⇨ 로디 왕조 •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고 지즈야(인두세)를 납부하면 힌두교의 신앙 인정(→ 이슬람교로 개종 증가) • 쿠트브 미나르 건립(델리),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인도·이슬람 건축양식, 우르두어 성립

21	무굴 제국(1526 ~ 1858)	
	성립 · 발전	• 바부르(재위 1526 ~ 1530) : 티무르의 후손, 술레이만 1세의 지원, 북인도 진출, 파니파트 전투(이브라힘 로디 격퇴, 1525), 건국(델리, 1526) • 아크바르(재위 1556 ~ 1605) : 수라트 침공(1573), 데칸 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 통일, 중앙 집권 체제 확립, 지즈야 폐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융합 도모(힌두교도의 관리 등용, 토착 힌두 세력과 혼인 정책) • 샤자한(재위 1627 ~ 1658) : 타지마할 묘당 축조(아그라, 1631 ~ 1653) • 아우랑제브(재위 1658 ~ 1707) : 데칸 고원을 넘어 남인도까지 진출, 지즈야 부활, 이슬람 우대 정책 추진, 라지푸트족의 반발, 비비 까 마크바라 건축(1678) • 북부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의 저항(고빈드 싱의 지도), 마라타 동맹의 반란(1720 ~ 1818)
	경제	• 인도양 무역 주도(면직물·견직물·향신료 등 수출 → 영국 산업 혁명의 계기)
	문화	•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 시크교[나나크 창시, 펀자브 지방에서 발전, 유일신,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반대, 남성들의 성씨로 싱 사용, 황금 사원(신의 집, 암리차르)] • 페르시아어(공용어), 우르드어(일상어) • 건축 양식(힌두 + 이슬람 + 페르시아 양식), 무굴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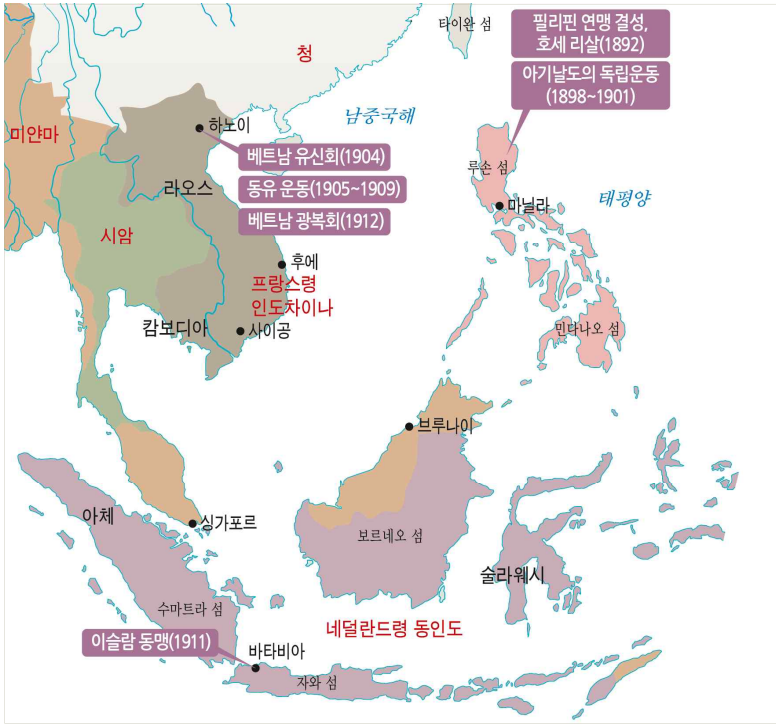
22	인도의 민족 운동	
	플라시 전투(1757)	• 영국 ⇔ 프랑스·벵골 연합군 ⇨ 영국 승리(벵골 지방 징세권 획득, 1765) ⇨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 조장, 크리스트교로의 개종 강요 • 인도 통치법 제정(1773)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1828)	• 람 모한 로이(1772 ~ 1833) 주도, 종교 운동(전통 신앙의 순수한 교리로 회귀) ⇨ 사회 개혁 운동(우상 숭배 배격, 카스트 제도 반대 등)
	세포이 항쟁 (1857 ~ 1859)	• 세포이(페르시아어로 병사,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인도인 용병)의 종교적 반발, 락 슈미 바이의 저항(델리 점령, 북인도 장악) • 바하두르 샤 2세 폐위, 인도 통치 개선법 제정(1858), 동인도 회사 해체(1876),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1877)
	인도 국민회의 활동	• 영국의 지원으로 결성(지식인·관리·지주·자본가 등 주도, 뭄바이, 1885) → 초기 영국의 인도 지배에 협조 • 벵골 분할령(1905)에 대응하여 반영 민족 운동 전개 : 콜카타 대회(틸라크 주도, 1906) → 스와라지(완전 자치), 스와데시(국산품 애용), 보이콧(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 진흥 등 강령 채택 • 벵골 분할령 철회(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허용, 1911)
	전인도이슬람교도연맹	• 민족 운동의 분열을 시도한 영국의 지원으로 결성(1906) → 인도 국민회의를 지원하여 반영 운동 전개
	롤럿법 제정(1919)	• 자치권의 확대를 약속받고 제1차 세계 대전 중 영국 정부에 협력 → 인도 총독이 인도인을 구속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재판을 거치지 않은 투옥 등으로 인도의 민족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
	마하트마 간디 (1869 ~ 1948)	• 롤럿법 폐지와 완전한 자치 요구, 사티아그라하('진리를 찾으려는 노력') 조직과 비폭력 불복종 운동 전개 • 공직 거부, 국산품 애용, 납세 거부 등 → 암리차르 학살 사건(1919. 4月) • 영국의 소금법 제정(소금 독점, 제염에 세금 부과) ⇔ 소금 대행진(사마르마티 아쉬람에서 구자라트 해안가 단디까지 행진, 1930. 3月)
	인도 독립 동맹(1928)	• 네루(1889 ~ 1964) 주도, 완전 독립을 요구하면서 파업과 무력 투쟁 전개
	신인도 통치법(1935)	• 인도의 각 주에 대해 외교와 군사를 제외한 자치 인정 → 인도와 동·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1947)

▣ 벵골 분할령의 목적

통합되어 있는 벵골은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다. 벵골을 분리하면 강력한 세력을 몇 개의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점은 국민회의 지도자들도 느끼고 우려하는 바이다. 그들의 우려는 완벽하게 정확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분할 계획이 가져올 큰 이점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있다. …… 우리의 주요한 목적은 우리의 통치에 대한 견고한 적대 집단을 분리하여 약화시키는 것이다.

23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

캄보디아	• 앙코르 톰(대왕도), 앙코르 와트 건립(12세기 크메르 제국, 힌두 사원 ⇨ 불교 사원)
베트남	• 응우옌 왕조(1801 ~ 1945), 청·프 전쟁(1884 ~ 1885), 함응이 황제의 근왕 조칙(1885) • 판보이쩌우(1867 ~ 1940) → 베트남 유신회 조직(1904), 동유 운동 주도(1905), 베트남 광복회 결성(광저우, 1912)
미얀마	• 영국령 인도 제국에 병합(1886)
말레이시아	• 믈라카 왕국[이슬람 왕조, 중계 무역으로 번성, 포르투갈에 정복(1511) ⇨ 네덜란드(1641)], 영국령 말레이 연방(1895)
인도네시아	• 보로부두르 사원[8세기 중엽 샤일렌드라 왕조(650 ~ 856), 대승 불교 사원]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1602), 자와 전쟁(1825 ~ 1830), 네덜란드령 동인도 건설(1904)
필리핀	•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1837 ~) ⇨ 미국·에스파냐 전쟁(1898) ⇨ 미국의 식민 지배 • 호세 리살[『나에게 손대지 마라』(1886), 『마지막 이별』(1896), 필리핀 연맹 조직(1892), 에스파냐 인과 동등한 대우 요구] • 아기날도[미국·에스파냐 전쟁에서 미국 지지, 필리핀 공화국 선포(1899), 미국에 대항·체포(1901)]
시암(타이)	• 짜끄리 왕조(차오프라야 짜끄리, 방콕 왕조, 1782 ~) 라마 5세(쭐랄롱꼰)의 근대적 개혁 → 동진하는 영국과 서진하는 프랑스의 완충 역할 자처(독립 유지)



24	고대 지중해 세계	
	에게 문명	• 해양 청동기 문명, 크레타 문명(크노소스 궁전) ⇨ 미케네 문명 ⇨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
	그리스의 폴리스 (기원전 10세기 ~)	• 폴리스(아고라 + 아크로폴리스, 헬레네스, 올림피아 제전), 아테네(제한적 직접 민주 정치)·스파르타(도리스인, 군국주의적 귀족 정치) • 아테네의 정치[왕정 ⇨ 솔론의 금권정 ⇨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 ⇨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도편추방제)]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 ~ 기원전 479) → 페리클레스 시대(델로스 동맹의 맹주, 공직 추첨제, 공직자 수당제) (가)은(는) 처음으로 배심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람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키몬의 부유함에 대항해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키몬이 제왕과 같은 부를 과시하며 먼저 공공 봉사를 흘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 펠로폰네소스 전쟁(폴리스 간 대립, 기원전 431 ~ 기원전 404) ⇨ 스파르타 시대 ⇨ 테베 시대 ⇨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의 폴리스 지배 • 다신교, 인간 중심, 소피스트·소크라테스, 호메로스·헤시오도스, 헤로도토스·투키디데스의 『역사』, 조화와 균형의 미(파르테논 신전)
	알렉산드로스 제국 (기원전 334 ~)	• 동방 원정(기원전 334 ~), 이소스 전투·가우가멜라 전투(⇔ 다리우스 3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멸망), 이집트 정복,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제국 형성 ⇨ 알렉산드로스 사후(기원전 323) 마케도니아, 시리아(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로 분열 • 페르시아의 전제 군주제 도입, 동서 융합 정책(세계 시민주의·결혼 정책)과 알렉산드리아 건설(그리스인 이주) • 헬레니즘 문화(그리스·오리엔트 문화 융합), 간다라 미술에 영향, 라오콘 군상·비너스, 에피쿠로스·스토아학파, 기하학·물리학·의학 발달
	로마 (기원전 8세기 ~)	① 왕정 ⇨ 귀족 공화정(기원전 509 ~) ⇨ 공화정의 민주화 : 호민관 제도(기원전 494, 집정관·원로원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평민회 설치(기원전 472) : 12표법(로마 최초의 성문법, 기원전 450) → 리키니우스 법(집정관 중 1명의 평민 선출, 기원전 367) → 호르텐시우스 법(평민회의 결의가 원로원의 동의 없이 국법으로 인정, 법률상 귀족과 평민의 권리 대등, 기원전 287) ② 이탈리아 반도 통일(기원전 272) ⇨ 포에니 전쟁(카르타고와 서부 지중해 해상권 경쟁, 기원전 264 ~ 기원전 146) ③ 라티푼디움(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의 경영 확대 → 자영농 몰락 ④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농지법·곡물법 제정, 자영농 육성과 부국강병 추구, 기원전 134 ~ 기원전 132 ~ 기원전 121) ⇨ 벌족파 對 평민파 ⑤ 스파르타쿠스의 난(카푸아의 검투사 노예, 자유를 외치며 봉기, 기원전 73 ~ 기원전 70) → 크라수스의 진압 ⑥ 제1차 삼두 정치(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 제2차 삼두 정치(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 악티움 해전(아그리파의 활약, 옥타비아누스의 승리, 기원전 31) ⇨ 원수정(옥타비아누스, 프린키파투스) ⇨ 제정 수립(아우구스투스) ⇨ Pax Romana ⑦ 군인 황제 시대(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게르만의 침입, 콜로나투스 제도, 235 ~ 284) 로마의 정복 전쟁이 끝나자 노예 공급이 감소하면서 라티푼디움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토지를 분할·대여하여 경작하는 소작제가 등장하였다. 부자유 소작농(콜로누스)을 이용한 농장 경영을 콜로나투스라고 한다. ⑧ 로마의 중흥 노력 : 디오클레티아누스(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 수습, 4제 통치 체제) ⇨ 콘스탄티누스[밀라노 칙령(313), 니케아 공의회(325),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330)] ⇨ 테오도시우스 황제(크리스트교의 국교 인정) ⇨ 로마의 분열[서로마(~ 476) : 동로마(~ 1453)] • 실용적 문화(법률, 아피아 가도, 콜로세움, 판테온), 스토아 철학, 『로마사』(리비우스)·『영웅전』(플루타르코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25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4세기 후반 게르만의 이동		• 발트 해 연안(원주지), 훈족 압박 ⇨ 프랑크족, 서고트족, 반달족 등의 이동(반달 왕국 성립, 435 ~) ⇨ 서로마 제국 멸망(476)
프랑크 왕국	클로비스	• 메로베우스 왕조 개창(481), 로마 가톨릭교(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496)
	카롤루스 마르텔	• 궁재로 실권 장악, 프린스의 칭호, 투르·푸아티에 전투(732)에서 이슬람 군대(우마이아 왕조) 격퇴
	피핀	• 카롤루스 왕조 개창(교황의 지지 → 킬데리쿠스 3세 폐위, 751), 롬바르드 정벌 → 라벤나 지방의 교황청 기증(756)
	카롤루스 대제	•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 수도 아헨,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 차지, 곳곳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 전파 → 서로마 황제로 대관(교황 레오 3세, 800) • 카롤루스 르네상스(궁정학교 설립, 학문과 라틴 고전 연구 후원) → 로마 문화·크리스트교·게르만 문화의 융합,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
	분열	• 카롤루스 대제 사후(814)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 발생 ⇨ 베르됭 조약(843)·메르센 조약(870) 체결 ⇨ 동프랑크[오토 1세, 레히펠트 전투, 신성 로마 제국(962 ~ 1806)], 서프랑크[카페 왕조(987 ~ 1328)], 중프랑크
9C 후반 노르만의 이동		• 스칸디나비아 지방(원주지), 바이킹,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 • 노브고로드 공국·키예프 공국·노르망디 공국(롤로, 911)·노르만 왕조(윌리엄 공, 1066)·시칠리아 왕국,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 건국
봉건 사회의 형성		① 배경 : 프랑크 왕국의 분열, 노르만족·마자르족·이슬람 세력 등의 침입으로 극심한 혼란 → 전사 계급의 성장과 예속 농민의 발생 ② 특징 : 정치적으로 주종제, 경제적으로 장원제에 기초한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 형성 ③ 주종제 : 주군(봉신에게 봉토 수여,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 서약 및 군사적 봉사, 쌍무적 계약관계), 봉신의 불입권(Immunity) 행사 ④ 장원제 : 토지[경작지(영주 직영지·농민 보유지, 삼포제로 경작), 공동 방목지, 삼림 등], 농노(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 영주의 직영지 경작, 지대 및 각종 세금 부담,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음, 결혼과 재산 소유 가능)
크리스트교의 성장과 교황권	교구의 변화	• 5대 교구(로마·비잔티움·안티오크·예루살렘·알렉산드리아) ⇨ 2대 교구(로마·비잔티움)
	교회의 성장	• 봉토와 기증받은 토지 등을 기반으로 세력 확대,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주교·사제에 이르는 계서제 구축
	동서 교회의 분열	• 성상 파괴령(비잔티움 레오 3세, 726) ⇨ 분열(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교회 : 비잔티움 황제의 그리스 정교회, 1054)
	교회의 세속화	• 세속 권력이 성직자 서임권 차지, 성직 매매 등 부패와 타락 → 교회 정화 운동 전개(10세기 초 클뤼니 수도원 중심)
	카노사의 굴욕	•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싼 교황(그레고리우스 7세)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인리히 4세)의 대립 ⇨ 교황의 황제 파문 ⇨ 황제가 카노사성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1077)
	교황권의 성장	• 보름스 협약(칼리스투스 2세 ~ 하인리히 5세,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 차지, 1122) •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재위 1198 ~ 1216) 때 교황권의 절정(교황은 해, 황제는 달)
중세 서유럽의 문화		• 크리스트교 중심, 교부 철학 → 스콜라 철학(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신앙과 이성의 조화, 1267), 교회와 수도원 중심의 교육 → 대학 발전(파리 대학·볼로냐 대학 등, 교회나 세속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 기사도 문학(『롤랑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니벨룽겐의 노래』), 바실리카 양식(4세기 ~) → 로마네스크 양식(11세기, 피사 성당) → 고딕 양식(12세기, 륄른 성당·샤르트르 대성당)

26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 황제 교황주의(황제가 교회 지배, 정교일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동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비잔티움 제국의 변천		①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 회복,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성 소피아 성당 건축) ② 7세기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실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압박으로 시리아·이집트 등 상실 → 9세기 둔전병제 붕괴 ③ 11세기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 알렉시우스 1세가 서유럽에 십자군 파병 요청 → 제4차 십자군(1202 ~ 1204)의 약탈 ④ 15세기 오스만 제국 술탄 메메트 2세의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으로 멸망(1453)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융합, 그리스어(공용어), 그리스 고전의 연구·보존(→ 르네상스에 영향), 비잔티움 양식(웅장한 돔·모자이크 벽화, 성 소피아 성당) → 슬라브족에게 전파, 동유럽 문화 발전에 기여, 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27 봉건 사회의 변화

십자군 전쟁 (1096 ~ 1270)		• 유럽의 대외 팽창 움직임, 셀주크튀르크의 예루살렘 점령(1071)과 비잔티움 제국 위협 → 클레르몽 공의회(교황 우르바누스 2세, 1095) • 제1차(예루살렘 왕국 건설, 1096 ~ 1099), 제4차(베네치아 상인의 개입,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라틴 제국 수립, 1202 ~ 1204)
교역의 확대		• 원거리 교역과 동방 무역 발달 → 북유럽 무역권(뤼베크·함부르크 등의 도시가 참여하여 한자 동맹 결성, 1241), 샹파뉴 지방(정기시 발달, 지중해와 북유럽 연결), 지중해 무역권(이탈리아의 베네치아 · 피렌체 등)
도시의 성장		• 자치권 획득(도시민들이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 획득 → 독자적으로 도시 운영) • 길드 조직(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조직, 생산과 상업 활동 통제, 상인 길드·수공업 길드)
장원제와 농노제의 해체		• 화폐 경제 발달 →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화폐 지대 요구 → 농노의 지위 향상 • 흑사병의 유행(1347 ~) → 노동력 감소 → 농민의 처우 개선 → 농노 해방과 자영 농민 증가 → 장원 점차 해체 • 일부 영주들의 속박 강화, 백년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증세 → 자크리의 난(플랑드르, 1358), 와트 타일러의 난(존 볼의 후원, 1381)
교황권의 쇠퇴		① 십자군 전쟁 실패로 신앙심 약화와 교황의 권위 약화 ② 아비뇽 유수(1309 ~ 1377) :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 → 필리프 4세의 삼부회 소집(1302) → 아나니 사건(필리프 4세가 교황을 굴복시킴, 1303) → 교황청(교황 클레멘스 5세)이 아비뇽으로 옮겨짐 ③ 교회의 대분열(1378 ~ 1417) : 로마와 아비뇽을 중심으로 교황이 선출되어 대립 → 피사 공의회(세 명의 교황이 대립, 1409) ④ 교회 개혁의 움직임 : 위클리프(1320 ~ 1384), 후스(1372 ~ 1415)의 교회 비판(『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 ⑤ 콘스탄츠 공의회(1414 ~ 1418) :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 후스 화형, 새로운 단일 교황 선출(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왕권의 강화		• 봉건 영주의 세력 약화, 교황권의 쇠퇴, 도시 상공업자들의 성장 → 국왕이 상비군과 관료 양성, 사법권과 과세권 확대
유럽 각국의 변화	영국	• 존왕의 대헌장 승인(1215) ⇨ 백년 전쟁(에드워드 3세,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 플랑드르 지방의 영유권 분쟁, 프랑스 내 영국 왕령을 둘러싼 대립, 1337 ~ 1453) ⇨ 장미 전쟁(1455 ~ 1485) ⇨ 헨리 7세의 튜더 왕조 개창
	프랑스	• 필리프 2세의 왕권 강화 ⇨ 백년 전쟁(샤를 4세의 죽음, 필리프 6세,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승리) ⇨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

27	봉건 사회의 변화		
	유럽 각국의 변화	독일 지역	•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명목상 통치, 봉건 제후의 강력한 세력 유지, 대공위 시대(1256 ~ 1273), 황금문서(카를 4세, 1356)
		이탈리아	• 교황령, 베네치아·피렌체 등 도시 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
		이베리아 반도	• 재정복 운동을 통해 아라곤, 카스티야 성립 → 에스파냐 왕국 탄생(1469) → 이슬람의 근거지인 그라나다 정복(1492)
			• 카스티야로부터 독립한 포르투갈의 성장(1143 ~)
		러시아	• 이반 3세(몽골 축출, 1480), 이반 4세(차르 칭호, 성 바실리 성당, 1561)

28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배경	•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 잔존, 비잔티움 제국의 많은 학자들 유입, 지중해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인·군주들이 문예 활동 장려
		특징	• 그리스·로마의 고전 작품 연구, 인문주의(휴머니즘) 및 예술 분야 발달
		인문주의자	• 페트라르카(서정시), 보카치오(『데카메론』, 1349 ~ 1353), 마키아벨리(『군주론』, 1513)
		미술	• 보티첼리(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모나리자), 미켈란젤로(다비드 상), 라파엘로(아테네 학당)
		건축	• 르네상스 양식 발전(열주와 돔 강조, 성 베드로 성당)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배경	•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 중심지의 대서양 이동 → 르네상스의 토대 마련
		특징	•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크리스트교적 인문주의) → 종교 개혁에 영향
		인문주의자	• 에라스뮈스(『우신예찬』, 1511), 토머스 모어(『유토피아』, 1516)
		미술	• 반에이크 형제(유화 기법 개발), 브뤼헐(서민의 생활 모습 표현), 홀바인(초상화) 등
		국민 문학	• 세르반테스(『돈키호테』, 1605), 셰익스피어(『로미오와 줄리엣』·『햄릿』 등)
	과학 기술의 발달	배경	• 르네상스 시대의 관찰과 탐구 정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 기술의 개량
		천문학	•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1543)
		사회 변화	• 화약(봉건 기사의 몰락 촉진), 나침반(원거리 항해에 이용,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르네상스·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 1455)

29 종교 개혁

루터 (1483 ~ 1546)		•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 마련을 위해 면벌부 판매 →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비텐베르크, 1517) → 루터파(제후의 지지)와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립(슈말칼덴 전쟁) →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체결(루터파 인정, 1555)
칼뱅 (1509 ~ 1564)		• 프랑스 출신, 제네바에서 활동, 『크리스트교 강요』(예정설 주장, 근면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 강조, 1536) • 신흥 상공업자의 호응 → 영국(청교도), 프랑스(위그노), 네덜란드(고이센) 등지로 전파
영국의 종교 개혁		• 정치·경제적 이유,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교황과 대립, 수장법을 통해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1534) → 수도원 해산, 교회의 토지·재산 몰수 →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법 반포(영국 국교회 확립, 1559)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		• 예수회 설립(에스파냐의 로욜라, 1534) →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 전개 • 트리엔트 공의회(1545 ~ 1563) → 라틴어 불가타 성경의 권위 인정, 교황과 교회의 권위 재확인, 교회의 폐단 시정 노력, 교회 내부의 결속 강화(종교 재판소 설치, 금서 목록 작성 등)
종교 전쟁	배경	• 종교 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신교)와 로마 가톨릭교(구교)의 대립 격화
	네덜란드	• 에스파냐 펠리페 2세의 가톨릭 강요 정책 → 신교도(고이센)의 독립 전쟁 주도(1568 ~ 1648)
	프랑스	• 위그노 전쟁(1562 ~ 1598) → 낭트 칙령(앙리 4세,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 1598)
	독일 지역	• 30년 전쟁(1618 ~ 1648) → 국제 전쟁으로 확대 →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칼뱅파 인정, 네덜란드·스위스 독립, 1648)

▣ 베스트팔렌 조약(1648)

1. 칼뱅파는 루터파와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2. 1624년 현재로 신교이든 구교이든 교회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재판소에서 루터파와 칼뱅파는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한다.
4. 각 제후는 자기 영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 주권을 행사한다.
5.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제외한 알자스·로렌을 차지한다.
6.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받는다.

30	유럽 세계의 변화		
	신항로 개척	배경	• 『동방견문록』(마르코 폴로)이 호기심 자극, 동방 산물(향신료, 비단 등)에 대한 욕구 증대, 오스만 제국의 동서 무역 주도로 동방과의 직거래를 위한 새로운 무역로 필요, 조선술·항해술 발달로 원양 항해 가능
		주도	•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대서양 진출에 유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신항로 개척 주도)
		포르투갈	• 바르톨로메우 디아스(희망봉 도착, 1488), 바스쿠 다가마(인도 항로 개척, 1498) • 호르무즈, 고아, 믈라카, 마카오 등의 무역 기지를 건설하여 향료 무역 전개
		에스파냐	• 콜럼버스(이사벨 1세의 후원, 서인도 제도, 1492), 아메리고 베스푸치(서인도 제도의 신대륙 확인, 1502), 마젤란(최초의 세계 일주, 필리핀에서 사망, 1519 ~ 1522)
		결과	① 교역망의 확대 :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 ②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 삼각 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교역의 발달(노예무역 성행), 대서양 교역을 통해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인의 아시아 진출(아메리카 은이 매개체) ③ 금·은 등 유럽 유입 ⇨ 유럽 물가 급등(가격 혁명) ⇨ 유럽의 경제 성장(상업 혁명 →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변화	아스테카 문명	• 멕시코고원 일대, 테노치티틀란(수도), 그림 문자 사용, 피라미드식 신전 건설 → 에스파냐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파괴
		잉카 문명	• 안데스고원 일대, 쿠스코(수도)에 거대한 태양 신전 건설, 새끼줄 매듭(키푸)으로 정보 교환 → 에스파냐 피사로의 침략으로 파괴
		아메리카의 변화	• 수탈 및 전염병 등으로 원주민의 수 급감, 유럽인의 대농장 운영(사탕수수와 담배 등 재배, 원주민의 노동 및 아프리카인의 노예 노동 이용)

31	유럽 세계의 변화		
	절대 왕정	성립 과정	• 16 ~ 18세기에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에 성립
		기반	•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상비군 정비, 왕권신수설 유행, 중상주의 경제 정책 실시
	서유럽의 절대 왕정	에스파냐	• 펠리페 2세(재위 1527 ~ 1598) : 무적함대, 레판토 해전(1571), 포르투갈 병합(1580), 네덜란드 북부 7주의 독립(1581)
		네덜란드	• 독립 전쟁(from 에스파냐, 1568 ~ 1648), 동인도회사 설립(1602), 믈라카 확보(from 포르투갈, 1641)
		영국	•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 ~ 1603) : 무적함대 격파(1588), 동인도회사 설립(1600), 통일법 반포(1559), 모직 공업 육성
		프랑스	• 루이 14세(재위 1643 ~ 1715) : 태양왕, 프롱드의 난 진압, 중상주의 정책 실시(콜베르 등용), 낭트 칙령 폐지(퐁텐블로 칙령, 1685), 베르사유 궁전 건축

31 유럽 세계의 변화

동유럽의 절대 왕정	특징	•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부진하여 시민 계급 성장 미약, 농노제 강화
	프로이센	•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 ~ 1786) : 계몽 전제 군주, 국가 제일의 공복 자처, 볼테르와 교유, 산업 장려, 7년 전쟁(오스트리아·프랑스·러시아 ⇔ 프로이센·영국, 1756 ~ 1763)에서 승리하여 슐레지엔 차지, 폴란드 분할(~ 오스트리아·러시아, 1772)
	러시아	• 표트르 대제(재위 1682 ~ 1725) : 서구화 정책 표방(서유럽의 기술과 문물 적극 수용),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천도(1713) : 북방 전쟁(⇔ 스웨덴, 1700 ~ 1721)에서 승리하여 발트 해 진출,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청의 강희제, 1689), 동방정책으로 시베리아 통치
		• 예카테리나 2세(재위 1762 ~ 1796) : 표트르 3세의 왕비에서 황제로, 계몽 전제 군주 자처, 농노제 강화, 흑해 진출·알래스카 획득, 폴란드 분할 점령

32 과학 혁명과 계몽사상

과학 혁명	배경	• 이슬람의 과학과 기술 수용, 르네상스 시대의 학문 발전, 정확한 관찰과 실험을 위한 도구(현미경 등) 발명
	의미	• 16 ~ 17세기에 걸쳐 일어난 과학의 발전과 이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천문학	• 케플러(행성이 태양 주위를 타원형의 궤도로 운행함을 밝힘, 지동설의 수정·발전, 1609) • 갈릴레이(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지동설 입증, 1609) • 뉴턴(만유인력의 법칙, 『프린키피아(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천체 운동을 수학 공식으로 설명,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
	의학	• 하비의 혈액 순환론 연구(『심장과 피의 운동에 대하여』, 1628),
근대 철학의 발전	•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과학적 사고방식 확산, 경험주의 철학(베이컨)과 합리주의 철학(데카르트)	
사회계약설	배경	• 과학 혁명의 영향으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의 존재에 대한 믿음 확산
	의미	•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을 맺어 국가와 사회가 등장했다고 주장 → 자연법사상을 토대로 확산
	대표 인물	홉스 • 인간이 혼란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려고 상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 절대왕정 옹호, 『리바이어던』(1651) 로크 • 저항권, 영국의 명예혁명 정당화,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 혁명에 영향, 『시민정부론』(1689·1690) 루소 • 일반 의지의 형성, 인민 주권의 원리 제시, 프랑스 혁명에 영향, 『사회계약론』·『에밀』(1762)

32 과학 혁명과 계몽사상

계몽사상	배경	• 16 ~ 17세기 과학 혁명의 성과와 사회 계약설의 등장
	내용	• 이성 중시, 미신과 무지 배격,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관습 타파를 통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음
	계몽사상가	• 볼테르(계몽 전제 군주제에 입각한 개혁 지지, 관용의 원리, 신앙과 언론의 자유 강조), 몽테스키외(삼권분립 주장), 디드로 · 달랑베르 등 『백과전서』 편찬(1751 ~ 1772) → 계몽사상 확산에 공헌
	의의	•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이념 형성에 영향

33 17 ~ 18세기의 문화

건축	17세기	• 바로크 양식(공간감과 장식성 강조), 베르사유 궁전(루이 14세)
	18세기	• 로코코 양식(섬세하고 우아한 미 추구), 상수시 궁전(프리드리히 2세, 근심 없는 궁전, 포츠담, 1747)
학문	천문학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주장, 1776) → 고전 경제학의 토대 마련

34 영국의 시민 혁명

혁명 전의 영국 사회	• 지주층인 젠트리(gentry)와 도시 시민 계급 성장, 청교도의 의회 진출 • 제임스 1세(재위 1603 ~ 1625)의 전제 정치 → 왕권신수설 고집, 국교회 강화, 청교도 탄압
청교도 혁명 (1642 ~ 1649)	① 찰스 1세(재위 1625 ~ 1649)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 박해 ⇨ 의회의 권리 청원 제출과 승인(1628) ⇨ 국왕의 의회 해산(1629) ⇨ 스코틀랜드와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 재소집(1640) ② 의회의 과세 요구 거부 ⇨ 찰스 1세의 의회 무력 탄압 ⇨ 내전 발생(왕당파 ⇔ 의회파, 1642) ⇨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 승리 ⇨ 찰스 1세 처형과 공화정 수립(1649) ③ 크롬웰의 통치[아일랜드 원정 단행(1649), 항해법 제정(1651), 호국경 취임(1653),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금욕주의적 독재 정치 강화] ④ 크롬웰 사후(1658) 의회의 왕정복고 결정 → 왕정복고(찰스 2세 즉위, 1660)
명예혁명 (1688 ~ 1689)	• 찰스 2세(재위 1660 ~ 1685)의 가톨릭 강화 정책 → 의회의 심사법 제정(1673), 인신 보호법 제정(1679) → 의회의 구분(토리당 : 휘그당) • 제임스 2세(재위 1685 ~ 1688)의 전제 정치 → 심사법 무시(비국교도의 공직 임명), 인신 보호법 무시 • 의회의 제임스 2세 폐위 → 메리·윌리엄 공동 왕 추대(1688) →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 승인(1689) →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 토대 마련
대영 제국 성립	• 앤 여왕(재위 1702 ~ 1714), 스코틀랜드 병합(1707)
내각 책임제 정착	• 조지 1세(재위 1714 ~ 1727)의 하노버 왕조 개창,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는 정치 전통 수립

35 미국의 시민 혁명

17 ~ 18세기의 북아메리카	17세기	• 종교의 자유, 경제적 기회를 찾아 영국인들이 이주
	18세기	• 동부 해안에 13개의 영국 식민지 건설(식민지는 광범위한 자치를 누림)
혁명의 배경	•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 강화(∵ 7년 전쟁으로 재정난 심화) ⇨ 식민지에 인지세(1765), 타운센드세(1767) 등 각종 세금 부과 • 식민지의 납세 거부 운동 전개("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 차세만 남기고 철회 ⇨ 보스턴 차(茶) 사건(1773) ⇨ 영국 정부의 강경 조치(보스턴 항구 폐쇄)	
혁명의 전개	① 제1차 대륙 회의(1774) : 필라델피아에서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의 탄압 조치 철회 요구 ② 렉싱턴 전투(1775) :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무력 충돌 ③ 제2차 대륙회의(1775 ~ 1781) : 대륙군 창설,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독립 선언문 공포(천부인권·주권재민·저항권 천명, 1776. 7. 4.) ④ 초반 열세 ⇨ 프랑스(1778), 에스파냐 등의 지원 ⇨ 요크타운 전투 승리(1781) ⇨ 파리 조약(13개 공화국 독립, 1783)으로 독립 승인	
미합중국 탄생	• 연방 헌법 제정(연방주의·삼권 분립, 1787) ⇨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1789)	
의의	• 프랑스 혁명에 영향	

36 프랑스의 시민 혁명

혁명의 배경	• 구제도의 모순(절대왕정, 가톨릭교회, 신분제를 토대로 사회 유지), 시민 계급 성장(계몽사상 수용), 정부 재정 위기(미국 혁명 지원)	
혁명의 전개	발발	• 삼부회 소집(루이 16세, 제1·2신분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 ⇨ 표결 방식을 둘러싼 대립·결렬 ⇨ 제3 신분 대표들의 국민 의회 구성과 '테니스코트의 서약' ⇨ 국왕의 국민 의회 탄압
	파리 민중의 봉기	• 바스티유 함락(1789) → 혁명의 확산과 농민 봉기, 베르사유 대행진(1789. 10.)
	국민 의회**	• 봉건제 폐지 선언(8월 법령),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 발표, 1791년 헌법(입헌군주제,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 제정 → 입법 의회 소집(1791. 10.)
	입법 의회**	• 지롱드파의 주도권 장악,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군사적 위협 →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 → 혁명전쟁 발발(1792)
혁명의 과격화	① 물가 상승, 식량 부족 → 파리 민중(상퀼로트)의 봉기(8월 혁명) → 튈르리 왕궁 습격 → 왕권 정지, 입법 의회의 루이 16세 퇴위 공포 ② 국민 공회(1792 ~ 1795) : 공화정 선포(제1공화정, 1792. 9.) → 루이 16세 처형(1793. 1.) → 혁명 재판소·공안위원회 설치(1793. 3 ~ 4.) ③ 1793년 헌법(= 자코뱅 헌법, 공화제·보통선거제 등 규정, 1793. 8.) ④ 자코뱅파의 권력 장악과 공포 정치 : 로베스피에르, 혁명 재판소·공안위원회 강화,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 반혁명 세력 제거 ⑤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 7.) : 공포 정치에 대한 반발, 로베스피에르 처형 → 총재 정부 수립 ⑥ 총재 정부(1795 ~ 1799) : 5명의 총재가 주도, 이탈리아 원정(1796)·이집트 원정(1798) →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나폴레옹, 1799)	
혁명의 영향	•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한 전형적인 시민 혁명(→ 시민 사회의 토대 마련), 자유·평등·우애의 정신 확산(→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	

37	나폴레옹 시대	
	통령 정부 (1799 ~ 1804)	• 쿠데타로 권력 장악(제1 통령에 취임), 오스트리아 격파(뤼네빌 화약, 1801)·영국과 휴전(아미앵 화약, 1802) → 대프랑스 동맹 와해 • 프랑스 은행 설립(1800), 국민 교육 제도 정비, 나폴레옹 법전 편찬(1804)
	제1 제정 (1804 ~ 1815)	•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나폴레옹 1세, 노트르담 대성당) •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 영국의 넬슨 제독, 1805) ⇨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1805) ⇨ 신성 로마 제국 해체(1806) ⇨ 라인 동맹 결성
	몰락	• 대륙봉쇄령(베를린, 영국과의 통상 금지, 1806) ⇨ 틸지트 조약(~프로이센~러시아, 1807) ⇨ 모스크바 원정 패배(1812) ⇨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1813) ⇨ 엘바 섬 유배(1814) ⇨ 탈출 ⇨ 워털루 전투 패배(1815) ⇨ 세인트헬레나 섬 유배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	• 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구체제에 대한 저항),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고양(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1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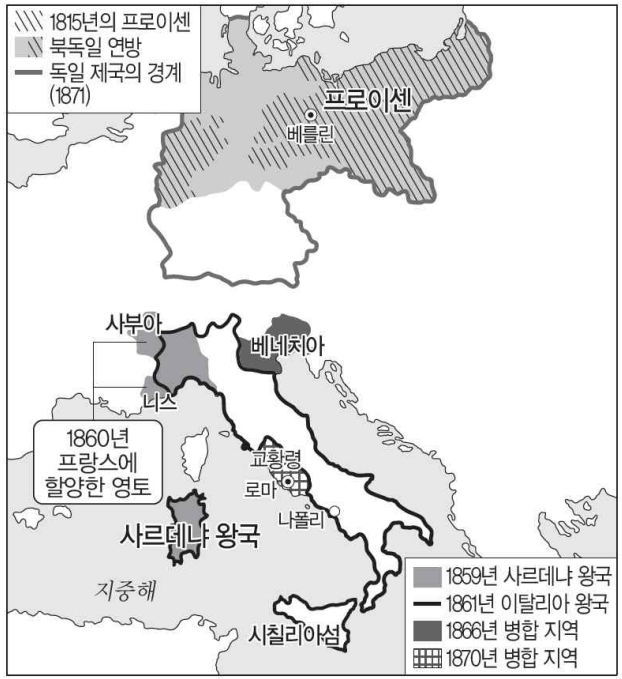
38	빈 체제의 성립과 저항	
	빈 회의 (1814 ~ 1815)	•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와 유럽의 질서 회복, 메테르니히 주도, 오스트리아·영국·프로이센·러시아 등 참가 •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함
	빈 체제 (1815 ~ 1848)	• 빈 조약 ⇨ 빈 체제(정통주의·복고주의, 왕정복고)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탄압 •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 대부분을 차지한다. • 프로이센은 작센 지방 영토 5분의 3을 차지하며, 바르샤바 대공국의 일부(포젠 대공국), 단치히, 라인란트 등지를 얻는다. • 옛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국을 정리하여 38개의 영방 국가를 모아 독일 연방을 창설한다. 연방의 의장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맡는다. • 빈 체제 유지 → 신성동맹(알렉산드르 1세, 러시아·오스트리아·프로이센), 4국 동맹(신성동맹 + 영국)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 부르셴샤프트(독일 지역, 학생 조합, 1815)의 활동,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러시아, 입헌 군주제 요구, 니콜라이 1세의 진압, 1825), 카르보나리당(이탈리아, 민족 통일과 자유주의 개혁 추진, 1806~)의 혁명 운동, 청년 이탈리아당(마치니, 1831)의 혁명 운동 • 그리스 독립 전쟁(영국·프랑스·러시아 정부와 유럽 지식인들의 지원, from 오스만 제국, 1821 ~ 1829), 아이티 공화국 수립(from 프랑스, 1804), 먼로 선언(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지원, from 에스파냐·포르투갈, 1823) 우리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그들이 아메리카의 어느 곳에라도 힘을 확장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편 유럽의 어느 국가에 속하는 현 식민지나 속령에 대해서도 우리는 방해한 바 없으며, 또 앞으로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여 유지하였고, 또 우리가 깊이 고찰한 끝에 호혜의 원칙에 따라 승인한 정부들을 억압하거나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그들의 운명을 지배하려는 목적 하에 취하는 유럽 어느 국가의 간섭 행위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의도의 발현이라고 밖에 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39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7월 혁명 (1830)	• 부르봉 왕조 부활(루이 18세, 1815) → 샤를 10세의 보수적 전제 정치 강화(7월 칙령, 언론의 자유 억압, 의회 해산) • 파리 시민의 봉기 ⇨ 샤를 10세 추방(부르봉 왕조 붕괴) ⇨ 루이 필리프를 국왕으로 추대, 입헌 군주제 수립(7월 왕정) • 벨기에 독립(from 네덜란드 연합 왕국, 1831), 청년 이탈리아당 결성(1831),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 등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 운동 자극
	2월 혁명 (1848)	• 산업화로 노동자 계층 성장 → 루이 필리프 1세의 친(親)부르주아 정책(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만 선거권 부여) •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가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며 봉기 ⇨ 7월 왕정 붕괴 ⇨ 제2 공화정 수립 ⇨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선출 • 오스트리아 3월 혁명 발생(→ 메테르니히 실각, 빈 체제 붕괴), 프로이센 등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 전개
	제2 제정 (1852 ~ 1870)	•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나폴레옹 3세) : 크림 전쟁(오스만 지원, 1853 ~ 1856), 제2차 아편 전쟁 참여(1856 ~ 1860), 프롱비에르 협정(~ 사르데냐 왕국, 공수동맹, 사보이·니스 할양, 1858), 멕시코에 군사 개입(막시밀리안 초빙, 1863), 수에즈 운하 건설(1869), 프로이센과 전쟁 패배(1870)
	파리 코뮌 (1871)	• 프로이센에 항복한 정부에 맞서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자치 정부 수립 •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정부군이 코뮌을 무력으로 진압 → 제2 공화정 수립(아돌프 티에르)

39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특징	• 의회가 주도하여 자유주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
	종교적 차별 폐지	• 심사법 폐지(비국교도에게 공직 허용, 1828), 가톨릭 해방법 제정(가톨릭교도에 대한 차별 대부분 철폐, 1829)
	선거법 개정	• 제1차 선거법 개정(부패 선거구 폐지, 도시의 상공업자에게 선거권 부여, 노동자의 참정권 배제, 1832) • 노동자 계층이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 등을 요구하는 인민헌장 발표(1838) → 차티스트 운동(선거법 추가 개정 요구, 1838 ~ 1848) • 제2차 선거법 개정(도시의 소시민과 노동자에게 선거권 허용, 1867), 제3차 선거법 개정(농촌 노동자와 광산 노동자들도 선거권 인정, 1884), 제5차 선거법 개정(만21세 이상의 보통 선거 허용, 1928)
	자유주의 경제 개혁	• 곡물법 폐지(1846), 항해법 폐지(1849) → 자유주의 경제 체제 확립

40	민족주의의 확산	
	이탈리아의 통일	• 여러 왕국과 교황령 등으로 분열,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마치니가 통일 운동 전개 → 실패 • 사르데냐 왕국 : 재상 카보우르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1859 ~ 1860) →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 통합 • 이탈리아 왕국 수립(수도 피렌체, 1861) : 가리발디가 의용군을 이끌고 시칠리아·나폴리 왕국 점령 → 사르데냐 왕국에 헌납 • 베네치아 병합(1866), 로마 교황령 점령(1870)

40	민족주의의 확산	
	독일의 통일	• 프로이센을 비롯한 40여 개의 소국들로 분열 • 관세 동맹(프로이센 주도, 경제적 통합 추구, 1834),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통일 방안 논의, 대독일주의 ⇔ 소독일주의, 결렬, 1848 ~ 1849) • 비스마르크의 재상 취임과 철혈 정책(1862) ⇨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승리(북독일 연방 결성, 1867) ⇨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승리(남독일 연방 결성, 1870) • 제정 수립 : 빌헬름 1세(독일 황제로 즉위, 베르사유 궁전, 재위 1871 ~ 1888)



41	미국과 러시아의 발전		
	미국	남북 전쟁 (1861 ~ 1865)	• 영토 확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 사이의 격차 심화 ⇨ 링컨의 대통령 당선(1860) ⇨ 남부 7주의 연방 탈퇴 ⇨ 남군의 섬터 요새 공격으로 전쟁 발발(1861) ⇨ 노예 해방 선언(1863) ⇨ 게티즈버그 전투(1863) ⇨ 북군의 승리(1865) • 국민적 단합을 이루고 산업 국가로 발전, 대륙 횡단 철도 개통(1869)
	러시아		• 차르 전제 정치와 농노제의 지속, 니콜라이 1세의 크림 전쟁(1853 ~ 1856) 패전 → 흑해 방면으로의 남하 좌절 •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 농노 해방령(1861), 러시아·튀르크 전쟁 승리(1877 ~ 1878),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암살(1881) → 전제 정치 강화 • 브나로드 운동 : 지식인들이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변혁 운동 주도(1873 ~ 1875) → 실패

42 산업 혁명

배경		• 신항로 개척 이후 상업 혁명, 인구 증가 → 상품 수요의 급증 → 중세적 길드 체제에서 선대제·매뉴팩처 체제로 전환
영국의 산업 혁명 (1768 ~)		• 인구 증가와 식민지 쟁탈전 승리로 국내 시장과 광대한 해외 시장 확보, 제2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풍부한 노동력 확보, 새로운 공업 발전에 필요한 철과 석탄 등 지하자원 풍부 • 면직물의 수요 증대 ⇨ 기술 혁명(방적기·방직기) ⇨ 동력 혁명(증기기관, 제임스 와트, 1782) ⇨ 교통 혁명[증기선(풀턴, 1807), 증기기관차(스티븐슨, 1814)] ⇨ 통신 혁명[유선 전신(모스), 무선 전신(마르코니), 전화(벨)]
산업 혁명의 확산		• 19세기 전반(벨기에, 프랑스) ⇨ 19세기 중후반(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 공장제 기계 공업 발달, 인구 증가와 도시화, 산업 자본가(생산 수단과 자본 소유)와 임금 노동자 등장
사회 문제 해결 노력	노동 문제	•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동 문제 등 → 공장법 제정(장시간 노동 제한과 아동 노동자 보호, 1833)
	노동 운동	• 기계 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 1811 ~ 1817), 차티스트 운동(노동자들이 참정권 등 정치적 권리 주장), 노동조합 결성
	사회주의 대두	• 공상적 사회주의(생시몽·푸리에·오언 → 경쟁 대신 협동을 강조하며 이상적인 공동체 구상) •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엥겔스, 자본가 계급 타도와 노동자들의 권력 쟁취 주장, 『공산당 선언(1848)』)

43 19세기의 문화

사상	• 벤담·밀(공리주의), 리카도·멜서스(고전 경제학), 콩트(실증주의 사회학), 헤겔(변증법), 랑케(실증주의 역사학)
문예 사조	• 낭만주의[19세기 전반, 계몽사상 비판, 인간의 감정 중시, 바이런·고야(1808년 5월 3일)·들라크루아(키오스 섬의 학살)] • 사실주의·자연주의[19세기 후반, 디킨스·쿠르베(돌 깨는 사람들)]
과학	• 다윈(『종의 기원』, 진화론 주장, 1859), 멘델(유전 법칙, 1865), 패러데이(전자기 유도 법칙), 파스퇴르(세균학) 등

44 제국주의 국가의 등장

제국주의의 의미	• 19세기 후반 열강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 건설을 추진한 정책
제국주의의 특징	• 독점 자본주의 등장, 식민지 확대(값싼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의 투자처를 필요로 함), 침략적 민족주의, 사회 진화론(후진 지역의 문명화를 명분으로 침략 합리화), 인종주의(백인의 우월성 주장)

45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 분할		
	아프리카 분할	영국	• 종단 정책(카이로 ~ 케이프타운), 수에즈 운하 관리권 차지, 이집트 보호국화,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음
		프랑스	• 횡단 정책(알제리 ~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보호령화, 사하라 사막 확보, 콩고 분할, 파쇼다 사건(영국 ⇔ 프랑스, 1898)
		독일	•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독일령 동아프리카·카메룬·토고·콩고 북부 등 차지, 모로코 사건(⇔ 프랑스, 1905·1911)
		• 벨기에(레오폴드 2세, 콩고), 포르투갈(앙골라·모잠비크), 이탈리아(리비아)	
	아시아와 태평양 분할	영국	• 플라시 전투(1757) 승리, 미얀마를 식민지화하고 영국령 인도에 병합(1886), 말레이 연방 결성(1895),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를 자치령으로 삼음
		프랑스	• 플라시 전투 패배, 인도차이나 반도 진출, 베트남 보호국화(1883), 청프 전쟁(1884 ~ 1885) 승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미국	• 무력시위로 일본 개항, 하와이 제도 병합, 에스파냐와 전쟁(1898) → 쿠바 보호국화, 필리핀과 괌 식민지화
		독일	• 태평양의 비스마르크 제도, 마셜 제도 등 점령
		러시아	• 시베리아 개척, 남하 정책을 통해 흑해 방면에서 오스만 제국 압박

46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리비아	• 오스만 제국의 지배 ⇨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알 무크타르의 저항 운동)
	알제리	• 프랑스의 침략(1830), 프랑스 정착지 건설, 원주민 차별
	수단	• 이집트, 영국의 지배 ⇔ 무함마드 아흐마드의 마흐디(구원자) 운동(1881 ~ 1898), 군대 양성과 토지 개혁 추진
	에티오피아	• 메넬리크 2세(철도·학교 설립, 신식 군대 창설 등 개혁 정치), 아도와 전투(⇔ 이탈리아, 1896) 승리 → 아디스아바바 조약으로 독립 인정
	줄루 왕국	• 샤카 줄루(부족을 통합해 왕국 건설), 이산들와나 전투(⇔ 영국, = 줄루 전쟁, 1879) 승리 → 영국의 식민지
	나미비아	• 헤레로 족의 무장 봉기(1904) → 독일 로타르 폰 트로타 장군의 무력 진압
	탄자니아	• 마지마지 운동(킨 제케틸레 주도, 목화를 뽑으며 봉기, 1905 ~ 1907) → 독일의 초토화 전술

47 제1차 세계 대전

유럽 열강의 대립	독일의 대외 정책 변화		• 비스마르크 :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 고립화 추진(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3국 동맹 체결, 1882) • 빌헬름 2세 : 대외 팽창 정책 → 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 연결 추진(3B 정책), 모로코 사건(1905·1911) • 범게르만주의 표방(발칸 지역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후원) ⇔ 범슬라브주의(러시아가 세르비아 후원)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		• 카이로 ~ 케이프타운 ~ 콜카타 연결 추진(세실 로즈, 3C 정책) • 빌헬름 2세의 정책에 맞서 3국 협상 성립 → 러·프(1894), 영·프(1904), 영·러(1907)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1908) → 슬라브계 민족의 독립 저지 시도
	발칸 전쟁	제1차	• 제1차 발칸 동맹(세르비아·불가리아·그리스 등) ⇔ 오스만 제국 → 동맹국의 승리, 1912
		제2차	• 제2차 발칸 동맹(세르비아·그리스) ⇔ 불가리아 → 동맹국의 승리, 1913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1914 ~ 1918)	① 사라예보 사건(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 암살,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1914. 6月) ②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선전 포고 ⇨ 동맹국과 협상국의 참전 ⇨ 오스만·불가리아의 동맹국 가담, 이탈리아의 협상국 가담(1915) ③ 독일의 벨기에 침공(1914), 프랑스 진격 ⇨ 마른 전투(914)·솜 전투(1916) ⇨ 전쟁의 교착 상태, 참호전 전개 ④ 영국 해군의 독일 봉쇄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1917) ⇨ 미국 참전[루시타니아 호 침몰(1915)·치머만 전보사건(1917), 1917. 4月] ⑤ 후세인·맥마흔 비밀 서한(1915), 사이크스·피코 협정(1916) 밸푸어 선언(1917) ⑥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러시아와 독일의 단독 강화 조약, 1918. 3月) ⑦ 동맹국의 항복 ⇨ 독일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1월 혁명 발생(1918) ⇨ 빌헬름 2세 폐위, 공화국 선포 ⑧ 연합국 측과 독일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체결 ⇨ 전쟁 종결(1918. 11月)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파리 강화 회의 (1919. 1. ~ 1920. 1.)		• 영국·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전승국 대표들이 회의 주도,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진행 •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이 강하게 작용
	베르사유 조약 (1919. 6.)		• 전승국과 독일 간에 체결(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 배상금 지불, 군비 축소 → 베르사유 체제 성립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	국제 연맹 창설 (1920)		•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기구, 최초의 국제 평화 기구(본부 제네바), 미국의 불참, 독일·소련 제외(독일은 1926년, 소련은 1934년 가입), 군사적 제재 수단 미비
	평화 유지 노력		• 워싱턴 회의(군비 축소 논의, 1921 ~ 1922), 로카르노 협정(1925), 켈로그·브리앙 조약(부전 조약, 1928)
전후 민주주의의 발전	제정 붕괴		•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 공화국 등) • 오스만 제국(→ 무스타파 케말, 터키 공화국 선포, 1923)
	보통 선거권 확산		•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 확대 → 영국(제5차 선거법 개정, 만21세 이상의 보통 선거 규정, 1928)
독일의 배상금 문제 논의	• 도스안(1924) ⇨ 영안(1929) ⇨ 로잔 회의(1932)		

48 러시아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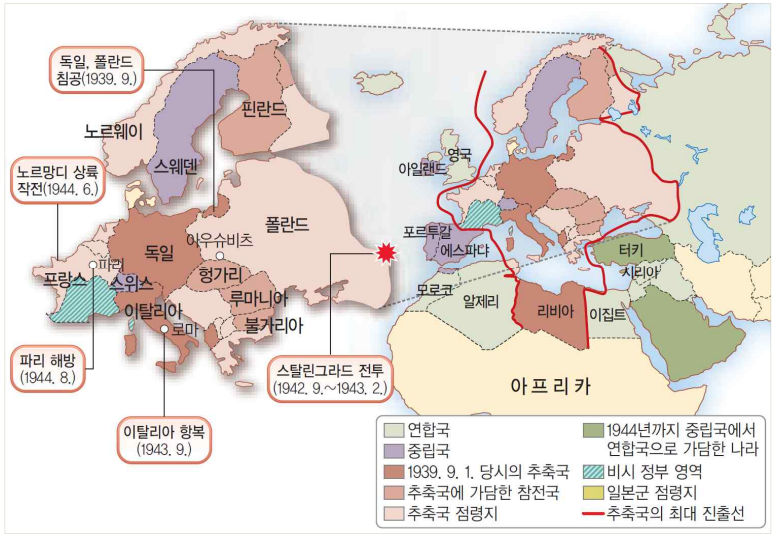
혁명 전의 상황		• 노동자 계급 성장, 레닌 등이 사회주의 정당 설립 • 러일 전쟁에서 열세, 차르의 전제 정치에 대한 불만 고조 ⇨ 시위 전개·무력 진압(피의 일요일 사건, 1905) ⇨ 전국적 시위와 파업 ⇨ 니콜라이 2세(재위 1894 ~ 1917)가 두마(의회)의 입법권 보장 및 개혁 약속(10월 선언) ⇨ 두마 의회 개설(1906)
혁명의 전개	3月(러시아력 2月) 혁명	• 제1차 세계 대전의 장기화로 물자 부족,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 저하 ⇨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차르 전제 정치 타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병사 소비에트 중심의 혁명 발생(상트페테르부르크) ⇨ 케렌스키 임시 정부 수립
	11月(러시아력 10月) 혁명	• 임시 정부의 미온적 개혁(전쟁 지속, 토지 개혁 지연) ⇨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와 임시 정부의 대립 ⇨ 전쟁 중지, 모든 권력의 소비에트 이양 등을 주장하는 볼셰비키의 무장 봉기(레닌 주도) ⇨ 임시 정부 타도, 소비에트 정부 수립 ⇨ 내전(백색군 ⇔ 적색군) 발생
혁명 이후의 러시아	레닌의 통치	•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 조약 체결(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 3月), 코민테른 창설(1919 ~) 01.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왕국, 오스만 제국 진영과 러시아측 진영은 이들 사이에 교전 상태가 중단되었음을 선언한다. 이들은 이후 평화와 상호간의 우호 관계 속에서 살기로 결정한다. 03. 조약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이전에 러시아에 속했던 선(線) 서쪽의 영토는 더 이상 러시아 주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국 간에 합의된 선은 이 평화조약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제출된 지도에 의해 정해진다. • 신경제 정책(NEP) 추진(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 극복, 자본주의적 요소 일부 도입, 1921 ~ 1928)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수립(=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 통합, 1922)
	스탈린의 통치	• 레닌 사망(1924) 이후 정권 장악,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중공업 육성, 농업 집단화, 1928 ~) • 독재 체제 강화(스탈린주의), 굴라크(수용소)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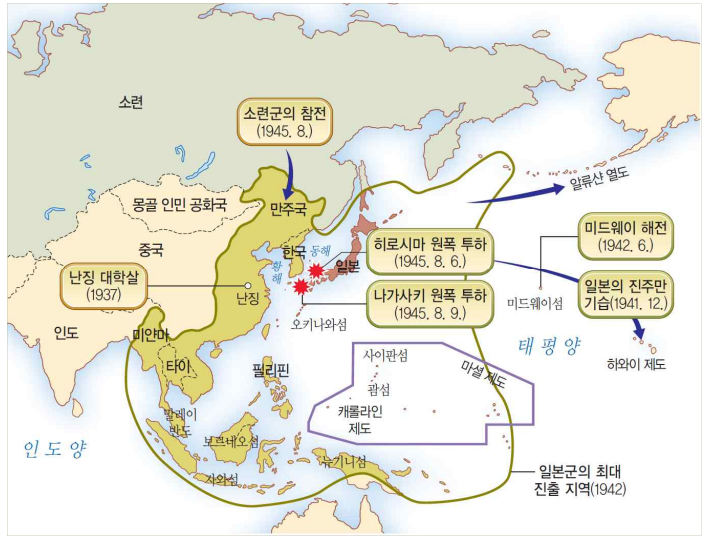
49 대공황과 전체주의

대공황의 발생	• 제1차 세계 대전 후 과잉 생산과 투자 ⇨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 미국 증권 거래소의 주가 폭락(검은 목요일, 1929) ⇨ 전 세계로 확산
각국의 대응책	• 미국 :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농업조정법·전국산업부흥법·노동관계법 제정, 정부의 시장 개입, 달러 블록 형성 • 영국 : 제2차 맥도널드 거국 내각 결성(1929), 국가 재정 삭감, 오타와 연방회의(1932)와 파운드 블록 결성 • 프랑스 : 좌파 인민전선 내각 수립(1936), 프랑 블록 형성
전체주의의 등장	① 특징 : 국가 지상주의, 일당 독재, 군국주의, 팽창주의, 언론과 사상 통제, 노동 운동 탄압 ② 이탈리아 :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 ⇨ 로마 진군(1922) ⇨ 에티오피아 침공(1935 ~ 36) ⇨ 국제 연맹 탈퇴(1937) ⇨ 알바니아 침공(1939) ③ 독일 : 총선에서 나치당 승리(1932) ⇨ 히틀러의 총리 취임, 국제 연맹 탈퇴(1933) ⇨ 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1934) ⇨ 반유대 정책 추진, 재무장 선언(1935) ④ 일본 : 군국주의 등장, 국제 연맹 탈퇴(1933)

50 제2차 세계 대전

전쟁 전 유럽의 상황	• 에스파냐 내전 : 프랑코 군부 세력의 반란(모로코, 1936) ⇨ 이탈리아·독일의 지원 ⇨ 프랑코 정권 수립(1939) • 3국 방공 협정 : 독일·이탈리아·일본, 1937 • 독일의 팽창 : 라인란트 주둔(1936) ⇨ 오스트리아 병합(1938) ⇨ 수데텐 지방 요구 ⇨ 뮌헨 회담에서 수용(1938) ⇨ 체코슬로바키아 점령(1939) ⇨ 단치히 회랑(폴란드) 요구 ⇨ 영·프·폴 상호 원조 조약 ⇨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1939. 8月)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 9.) ⇨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포고 ⇨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벨기에 침략(1940. 4.) ⇨ 됭케르크 다이나모 철수 작전(처칠) ⇨ 나치의 파리 점령과 비시 정부 수립(1940. 6.) ⇨ 드골의 자유 프랑스 결성(영국, 레지스탕스 운동) ⇨ 독일의 소련 영토 진격(독소 불가침 조약 파기, 1941. 6.) ⇨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 봉쇄(ABCD 포위 작전, 1941) ⇨ 태평양 전쟁(일본의 진주만 기습, 1941. 12.) ⇨ 미국의 참전 ⇨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1942. 6.) ⇨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1942 ~ 43) ⇨ 이탈리아 항복(1943. 9.) ⇨ 노르망디 상륙 작전(1944. 6.) ⇨ 파리 해방(1944. 8.) ⇨ 독일 항복(1945. 5.) ⇨ 일본 항복(1945. 8.)
전쟁 중 평화 회담	• 카이로 회담(미·영·중, 1943. 11.) ⇨ 테헤란 회담(미·영·소, 1943. 11 ~ 12.) ⇨ 얄타 회담(미·영·소, 1945. 2.) ⇨ 포츠담 회담(미·영·중, 1945. 7.)
전후 처리	•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개별 조약 체결,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 개최(뉘른베르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미·영·프·소의 독일 분할 관리(→ 독일의 동서 분단), 일본의 주권 회복(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오스트리아의 중립국화
국제 연합[UN] 성립 (1945. 10.)	• 대서양 헌장(1941. 8.) : 루스벨트와 처칠이 발표, 전후 평화 수립 원칙 제시(국제 연합 창설의 기초 마련) • 샌프란시스코 회의(1945. 6.) : 국제 연합 헌장 채택 → 정식 출범(51개국 참가) •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정보다 우선, 상임 이사국(미·영·프·소·중)의 거부권 행사, 국제 분쟁에 무력 개입(유엔군 파견)





51 냉전 체제의 전개

냉전 체제의 형성	자본주의 진영	• 트루먼 독트린(1947), 마셜 플랜(1947), 독일 내 관할 지역에 단독 통화 개혁 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49)
	공산주의 진영	•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 1947), 코메콘(경제 상호 원조 회의, 1949), 베를린 봉쇄(1948 ~ 1949),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1955)
냉전의 심화	• 철의 장막(북서부 유럽 ⇔ 동부 유럽), 베를린 장벽 설치(1961), 쿠바 미사일 위기(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 설치 시도에 미국이 쿠바 봉쇄로 대응하여 갈등 심화, 1962), 한국 전쟁(1950 ~ 1953), 베트남 전쟁(1964 ~ 1975)	

52 제3 세계

제3 세계의 등장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비동맹 중립주의·독자노선을 표방
제3 세계의 발전	① 평화 5원칙(1954) :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발표 ② 평화 10원칙(1955) :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발표 ③ 제1차 비동맹 회의(1961) : 유고슬라비아 연방 베오그라드에서 개최, 제3 세계의 협력·결속 강화 선언

53 냉전의 해체

냉전의 완화	• 배경 : 미국과 소련 사이에 긴장 완화 분위기 조성	

	• 소련 : 흐루쇼프(제4대 공산당 서기장, 1955 ~ 1964)의 평화 공존 추구 → 서독과 국교 회복(1955), 미국 방문(1959)
	• 미국 : 닉슨 독트린 발표(1969),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미중 정상회담, 1972), 소련과 제1차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 체결(1972),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철수(1973), 미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1979)
	  •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미국은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의 경우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기를 바란다.
	• 서독 : 빌리 브란트 총리(재임 1969 ~ 1974)의 동방 정책 → 동·서독 기본 조약(1972), 동·서독 동시 UN 가입(1973)	

	• 프랑스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탈퇴(1966), 중국과 소련의 이념 대립, 서독과 일본의 경제 성장	
소련의 변화와 해체	고르바초프	• 제8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1985 ~ 1990),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 표방, 시장 경제 도입,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 언론 통제 완화,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 철수,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불간섭 선언, 몰타 회담(1989)
	옐친	• 보수 세력의 쿠데타 진압, 독립 국가 연합(CIS) 선언(1991. 12. 21.), 소련 해체(1991. 12. 26.)

53	냉전의 해체	
	독일의 통일	• 동·서독 간 경제 성장 격차 심화, 동·서독 교류 활성화,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 • 동·서독 통행 자유화 조치(1989) ⇨ 베를린 장벽 붕괴(1989. 11.) ⇨ 독일 관련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모스크바, 1990. 9.) ⇨ 통일(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 1990. 10.)
	동유럽 공산주의권의 붕괴	•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및 정치적 간섭 약화 • 폴란드 : 자유 노조 운동(1980), 자유 총선거(1989), 바웬사 민선 대통령 당선(1990) • 헝가리 : 부다페스트 자유 시위(1956), 다당제, 시장 경제 제도 도입, 헝가리 공화국 수립(1990) • 루마니아 : 차우셰스쿠 정권 붕괴(1989), 자유주의 개혁 • 체코슬로바키아 : 프라하의 봄(1968), 벨벳 혁명(1989), 하벨의 시민 광장(포럼), 연방 해체와 하벨의 대통령 당선(1993)

54	탈냉전 시대	
	분쟁의 발생	• 민족·종교·영토·인종 등을 둘러싼 갈등의 고조 • 카슈미르 분쟁,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내전, 르완다 내전(후투족 ⇔ 투치족, 1994), 팔레스타인 분쟁, 체첸과 러시아의 갈등
	세계 질서의 재편과 지역화	• 브레턴우즈 회의(국제 통화 금융 회의, 1944) :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결정, 국제 통화 기금(IMF, 1945)·국제 부흥 개발 은행(IBRD, 1945) 창립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47)
		• 자유 무역 체제의 형성과 강화 : 석유 파동(1973, 1978) ⇨ 신자유주의 등장[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 우루과이 라운드(UR, 1986) ⇨ 세계 무역 기구(WTO, 1995) ⇨ 뉴 라운드(NR, 2000)
		• 지역별 경제 공동체의 형성 : 시망 선언(1950) ⇨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ECSC, 1952) ⇨ 유럽 경제 공동체(EEC, 1958) ⇨ 유럽 공동체(EC, 1967) ⇨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 ⇨ 유럽 연합(EU, 1993) ⇨ 단일 유로화 사용(1999)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967),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SACU, 1969),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1989),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1994)